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5 | No.164



해외 경제 동향

대외 여건 동향 | 주요국 산업 동향

국내 실물 경제

국내 경기 | 고용 | 물가 | 금융·외환 | 수출입

주요 산업별 동향

제조업 | 서비스산업

지역별 동향

개관 | 지역별 동향

산업 포커스

미국과의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이 국내 방산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5 | No. 164

# 차 례

## I. 해외 경제 동향

1. 대외 여건 동향 .....	5
(1) 세계 경제 .....	5
(2) 국제 금융·유가 .....	6
2. 주요국 산업 동향 .....	7
(1) 중국 .....	7
(2) 미국 .....	11
(3) 일본 .....	12
(4) 유로존 .....	14

## II. 국내 실물 경제

1. 국내 경기 .....	16
2. 고용 .....	18
3. 물가 .....	19
4. 금융·외환 .....	20
5. 수출입 .....	22

## III. 주요 산업별 동향

1. 제조업 .....	23
(1) 총괄 .....	23
(2) 자동차 .....	26
(3) 조선 .....	27
(4) 일반기계 .....	28
(5) 철강 .....	30
(6) 정유 .....	31
(7) 석유화학 .....	33

(8) 섬유 .....	34
(9) 가전 .....	35
(10) 무선통신기기 .....	37
(11) 반도체 .....	39
(12) 디스플레이 .....	40
2. 서비스산업 .....	41
(1) 생산 .....	41
(2) 고용 .....	44
(3) 서비스수지 .....	46

#### IV. 지역별 동향

1. 개관 .....	48
(1) 생산 .....	48
(2) 고용 .....	49
(3) 수출 .....	51
2. 지역별 동향 .....	52
(1) 수도권 .....	52
(2) 충청권 .....	54
(3) 호남권 .....	56
(4) 대경권 .....	58
(5) 동남권 .....	60
(6) 강원·제주권 .....	62

#### V. 산업 포커스

1. 미국과의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이 국내 방산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65
--	----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5 | No.164

발행인	주현
편집인	김인철
발행일	2023년 5월 31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홈페이지	<a href="http://www.kiet.re.kr">http://www.kiet.re.kr</a>
구독문의	044-287-3146
인쇄처	(주)프리비

# I

## 해외 경제 동향

### 01 대외 여건 동향

#### (1) 세계 경제

- 미국은 지난 3월 생산 보합과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의 부진세가 이어지고, 체감지표들의 혼조와 선행지수의 하락 등 경제지표들의 약세 흐름이 지속
  - 올 1분기 소비(3.7%)와 정부지출(4.7%)의 확대에도 투자 부진(-7.3%)이 심화되면서 전기비 성장률이 전분기(2.6%)보다 낮은 1.1%(전년동기비 1.6%)
- 일본은 2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유로존은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양 지역에서 모두 축소
  - 일본의 2월 무역적자 규모가 수입 증가율이 한 자릿수(17.6% → 8.3%)로 떨어지면서 2022년 3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저치, 유로존의 무역적자도 수입 증가세가 큰 폭 둔화(7.3% → 1.3%)하면서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 중국은 3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전월보다 증가세가 현저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수출도 2022년 9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시현
  -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말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내수 부문의 호조 등에 힘입어 2022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4.5%를 기록

## 주요국의 실물지표 추이

단위: 전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2월	1/4	1월	2월	3월
미국	실질GDP <sup>1)</sup>	5.9	2.1	3.2	2.6		1.1			
	산업생산	4.4	3.4	0.5	-0.6	-1.5	0.0	0.9	0.2	0.4
	소매판매	19.8	9.2	0.8	0.2	-0.8	1.7	3.1	-0.2	-1.0
	무역수지 <sup>2)</sup>	-845.0	-945.3	-207.0	-205.0	-67.2	-203.5	-68.7	-70.6	-64.2
일본	실질GDP	2.1	1.0	-0.3	0.0		-			
	광공업생산	5.6	0.1	5.9	-3.0	0.3	-	-5.3	4.6	-
	소매판매	2.0	2.6	1.3	1.2	0.3	-	0.8	2.1	-
	무역수지 <sup>2)</sup>	-1,784	-19,966	-6,312	-5,662	-1,459	-	-3,506	-898	-
유로	실질GDP	5.3	3.5	0.4	-0.1		-			
	산업생산	8.8	2.1	0.5	-0.3	-1.4	-	1.0	1.5	-
	소매판매	5.1	0.9	-0.7	-0.9	-1.5	-	0.8	-0.8	-
	무역수지 <sup>2)</sup>	110.7	-322.9	-122.9	-56.1	-13.1	-	-11.6	-0.1	-
중국 <sup>3)</sup>	실질GDP	9.1	3.0	3.9	2.9		4.5			
	산업생산	9.3	3.4	4.8	2.8	1.3	3.2	-	2.4	3.9
	소매판매	12.4	-0.8	3.5	-2.7	-1.8	7.1	-	3.5	10.6
	수출(달러화)	29.6	7.0	10.2	-6.7	-10.0	0.5	-10.5	-1.3	14.8

자료: 미 상무부, 연준,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주: 1)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 통화 10억 기준, 3)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 (2) 국제 금융·유가

### □ 5월 초 미 달러화 약보합 및 유가 일시 급락

- 달러화는 4월 중 미국의 인플레이 둔화세와 중국의 1분기 성장률 호조 등으로 일정 범위에서 등락세를 보이고, 5월 초에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25bp) 이후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협상과 인플레이 항방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약보합



## 주요 국제가격 추이

단위: 기말 기준, %, 달러/배럴

	2022					2023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0일
엔/달러	138.96	144.74	148.71	138.07	131.12	130.09	136.17	132.86	136.30	134.34
달러/유로	1.0054	0.9802	0.9882	1.0406	1.0705	1.0863	1.0576	1.0839	1.1019	1.0982
미 국채 (10년 만기)	3.19	3.83	4.05	3.61	3.87	3.51	3.92	3.47	3.42	3.44
WTI유	89.6	79.5	86.5	80.6	80.3	78.9	77.1	75.7	76.8	72.6
두바이유	95.6	90.1	90.0	80.2	78.7	79.3	81.3	76.8	78.9	75.7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 엔/달러 및 달러/유로 환율은 4월 중 각각 2.6%와 1.7% 상승(엔화 약세, 유로 강세)하고, 5월 초에 소폭 하락 전환
- 유가는 4월 초 OPEC의 감산 발표로 급등한 이후에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5월 들어 미국의 은행위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시 급락한 이후에 경기 침체 우려 완화와 수요 회복 기대감으로 소폭 반등
- WTI유와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4월 중에 각각 1.5%와 2.7% 상승한 이후 5월 초 현재 5.5%와 4.1% 하락 전환

## 02 주요국 산업 동향

## (1) 중국

- 3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3.9%로, 증가세 확대
- 3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3.9%로 증가세 확대
  - 광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0.9%

##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상반기	연간	상반기	연간	12월	1~2월	3월
공업 전체		15.9	9.6	3.4	3.6	1.3	2.4	3.9
섬유	방직	11.8	7.5	-2.5	-6.6	-10.3	-11.2	-10.2
	화학섬유	17.1	9.1	0.5	-1.0	-11.6	-6.0	3.7
화학	에틸렌	26.6	18.3	1.4	-1.0	4.6	-1.7	3.6
	플라스틱원료	12.3	5.8	1.0	1.5	1.2	0.9	4.2
	플라스틱제품	18.2	5.9	-3.2	-4.3	-10.5	-7.4	-2.1
철강	선철	4.0	-4.3	-4.7	-0.8	-4.6	7.3	7.3
	조강	11.8	-3.0	-6.5	-2.1	-9.8	5.6	6.9
	강재	13.9	0.6	-4.6	-0.8	-2.6	3.6	8.1
비철금속		11.0	5.4	1.0	4.3	7.3	9.8	6.9
기계	금속절삭기계	45.6	29.2	-7.3	-13.1	-11.7	-11.8	0.0
	소형트랙터	27.6	2.2	-17.3	-11.5	-17.6	26.1	29.4
	대기오염방지설비	25.6	15.4	0.7	4.3	27.8	37.4	28.7
	발전설비	17.4	9.9	9.4	17.3	42.2	-1.9	19.7
자동차		26.4	4.8	-2.1	3.4	-16.7	-14.0	11.2
조선		19.1	8.0	-11.1	-4.5	-7.8	-21.9	13.6
전자	세탁기	33.5	9.5	-4.1	4.6	5.4	1.8	18.8
	냉장고	18.8	-0.4	-6.2	-3.6	-5.0	7.9	9.0
	에어컨	21.0	9.4	1.1	1.8	-9.9	10.8	13.2
	컬러TV	5.6	-3.6	5.8	6.4	-8.3	-4.7	1.2
	컴퓨터	40.6	22.0	-4.4	-8.1	-19.3	-23.5	-19.4
	반도체	48.1	33.3	-6.3	-11.6	-7.1	-17.0	-3.0
	휴대폰	21.1	7.0	-2.7	-6.2	-18.4	-4.8	-0.7
서비스	화물운수	24.6	12.4	-2.2	-3.1	-5.3	1.2	11.3
	여객운수	11.1	-14.1	-37.2	-37.2	-37.3	10.8	67.7
	우편 <sup>3)</sup>	34.4	25.1	6.0	4.5	3.0	4.6	-
	통신 <sup>3)</sup>	28.3	27.8	22.7	21.3	20.8	17.7	18.6
	소매업	20.6	11.8	0.1	0.5	-0.1	2.9	9.1
	음식숙박업	48.6	18.6	-7.7	-6.3	-14.1	9.2	26.3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주: 1) 산업 전체는 부가가치 증가율.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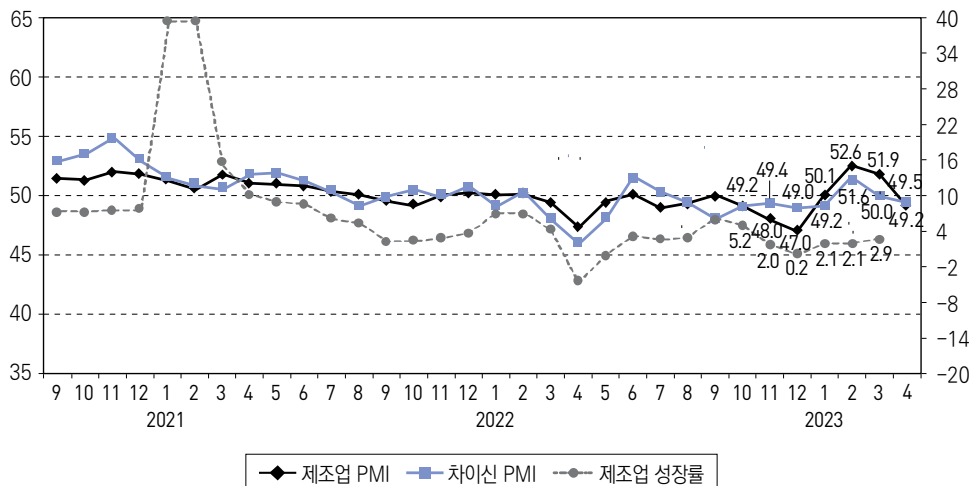
3) 각 월 1월부터 누계 기준.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4.2%
- 3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소유제별로 보면, 소유제와 상관없이 모두 증가하여, 국유기업은 전년동기비 4.4%, 민영기업은 2.0%, 주식제기업은 4.4% 수준
- 3월의 업종별 생산량을 보면 경제활동 정상화로 기계, 자동차 등 주요 업종과 서비스업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IT업종은 감소세 지속
  - 섬유업종은 방직(-10.2%)은 감소했으나 화학섬유(3.7%)가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화학업종은 플라스틱원료(4.2%)가 증가세가 확대되고 에틸렌(3.6%)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플라스틱제품(-2.1%)은 감소세 유지
  - 철강업종은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수요 확대로 모든 품목이 증가세를 유지하여 생산량이 전월 대비 선철 7.3%, 조강 6.9%, 강재 8.1% 증가
  - 비철금속은 전년동기비 생산량이 6.9%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기계업종은 대기오염방지설비(28.7%)와 소형트랙터(29.4%)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발전설비(19.7%)도 증가세로 전환하고 금속절삭기계(0.0%)도 전년 수준 유지
  - 자동차는 주요 업종의 가격할인과 지방정부 보조금 지급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생산량이 11.2%로 증가세 전환
  - 조선업은 생산활동 정상화와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생산량이 13.6%로 증가세로 전환
  - 전자업종에서 세탁기(18.8%)와 에어컨(13.2%), 냉장고(9.0%)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컬러 TV(1.2%)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IT 업종인 휴대폰(-0.7%)과 반도체(-3.0%)는 감소세가 축소되었고 컴퓨터(-19.4%)는 두 자릿수 감소세 지속
- 경제활동 정상화와 소비심리 회복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하여 운수업이 두 자릿수 대폭 증가했으며 음식숙박업과 소매업도 증가세 확대
  -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와 기저효과로 여객운수(67.7%)가 두 자릿수 대폭 증가했으며 물류 정상화로 화물운수도 11.3%로 증가세 확대
  - 통신은 18.6% 증가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
  - 경제활동 정상화와 소비 증가로 음식숙박업(26.3%)이 대폭 증가했으며 소매업(9.1%) 증가세 확대

#### □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관방치와 민간치 동반 기준치 하회

- 4월 중국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이하 PMI)는 전월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49.2로 3개월 만에 기준치(50) 이하로 하락
  -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4.4포인트 하락한 50.2
  - 신규주문지수는 전월 대비 4.8포인트 하락한 48.8
  - 부품재고지수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47.9
  - 종업원지수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48.8
  - 원자재배송시간지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50.3
- 제조업 PMI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전월보다 하락하여 기준치(50)를 하회
  - 대형기업은 전월보다 4.3포인트 하락한 49.3
  - 중형기업은 전월보다 1.1포인트 하락한 49.2
  - 소형기업은 전월보다 1.4포인트 하락한 49.0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http://www.stats.gov.cn)), Markit([www.markiteconomics.com](http://www.markiteconomics.com)).

- 4월 차이신(Caixin) PMI(財新中國通用製造業, 이하 민간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한 49.5로 2개월 만에 기준치(50) 하회
  - 차이신 PMI는 중국 제조업 전반적인 여건과 소비 증가세 등의 경제회복 강도가 기대보다 강하지 않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전월보다 감소하여 기준치(50) 이하를 기록
  - 경제회복세 둔화로 생산활동이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수요 부진으로 신규 주문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수출 주문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증가세는 제한적
  - 고용지수는 기업들의 수요 부진 예상으로 신규 고용을 축소하고 기존 직원도 다시 줄이면서 3개월 만에 크게 악화
  - 물가지수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투입 물가가 하락하고 수요 부진으로 생산자 물가도 하락하면서 물가가 급락하여 2016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우려 제기
  - 기업들의 생산량 조정으로 구매가 제한되어 원자재 및 완제품 재고가 변동이 없어 원자재 구매와 재고지수는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고 물류 정상화로 배송 시간과 물류 서비스가 개선되어 배송 시간 단축도 지속
  - 기업들은 향후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였으며, 신제품 출시와 정부의 지원 정책 및 투자 확대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2) 미국

### □ 3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0.9% 감소

- 컴퓨터·주변기기와 통신기기가 제조업 생산을 견인
  - 컴퓨터·주변기기는 전년동월비 17.0%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지난해부터 제조업 생산을 견인해온 대표 업종
  - 통신기기의 생산도 11.2% 증가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두 자릿수 증가폭을 지속
  - 항공우주도 6.2%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세 계속
- 그러나 대부분 업종에서 뚜렷한 증가 없어 전체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수준에 그침.

## 미국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증가율, %

	2022				2023			
	9월	10월	11월	12월	1/4	1월	2월	3월
제조업 전체	4.2	2.5	0.9	-1.0	0.1	0.8	0.4	-0.9
식품	3.2	2.8	1.2	-0.6	0.2	1.4	-0.3	-0.5
제지	-3.9	-5.8	-3.1	-9.1	-9.3	-7.8	-10.1	-10.0
정유	1.5	-2.1	-1.5	-4.7	-1.2	-0.6	-1.3	-1.6
화학	2.6	0.4	-0.2	-4.4	1.3	0.6	2.4	0.8
플라스틱·고무	3.6	2.9	-1.1	-1.4	-1.7	0.2	-2.8	-2.3
1차 금속	-2.3	-3.2	-5.9	-5.5	-2.1	-2.0	-2.8	-1.5
가공금속	4.4	3.1	1.1	0.8	0.0	1.2	0.0	-1.2
기계	6.9	7.1	6.4	1.2	1.3	3.0	1.0	-0.1
컴퓨터·주변기기	15.8	12.4	12.6	10.7	16.6	17.2	15.7	17.0
통신기기	17.2	12.9	10.3	10.2	11.4	11.1	11.9	11.2
반도체·전자부품	-1.0	-1.7	-2.7	-4.8	-4.6	-8.6	-1.8	-3.4
자동차·부품	20.3	11.2	4.4	7.7	4.9	3.8	9.6	1.7
항공우주	12.7	13.3	12.1	12.0	7.6	9.9	6.8	6.2

자료: 미 연준([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

- 자동차·부품과 화학은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각각 전년동월비 1.7%, 0.8%로 증가폭 미미
- 제지의 생산은 10%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생산 부진 지속
- 반도체·전자부품(-3.4%)을 비롯한 플라스틱·고무(-2.3%), 정유(-1.6%), 1차 금속(-1.5%) 등 다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생산 감소 관찰

### (3) 일본

□ 3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0.8% 감소

- 주요 제조업종 중 수송기기, 전기·정보통신기기만 생산 증가 뚜렷
  - 수송기기는 전년동월비 14.6%의 생산 증가를 기록, 1분기 실적이 가장 좋은 업종으로

## 일본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증가율, %

	2022				2023			
	9월	10월	11월	12월	1/4	1월	2월	3월
제조업 전체	9.5	3.1	-0.8	-2.4	-1.4	-3.2	-0.4	-0.8
강철·비철금속	-2.7	-2.3	-5.3	-8.5	-5.9	-7.9	-4.4	-5.4
금속제품	5.0	2.6	1.4	-1.4	-2.8	-2.5	-0.9	-4.6
생산기계	18.2	5.1	0.6	1.1	-5.6	-13.4	-1.8	-2.8
범용·업무용 기계	5.9	10.9	1.7	-5.1	-2.8	2.0	-0.8	-7.9
전자부품·기기	-7.9	-10.3	-12.7	-13.1	-20.3	-19.2	-15.4	-25.4
전기·정보통신기기	10.7	7.8	8.9	5.4	8.1	8.4	8.1	7.9
수송기기	52.0	28.3	0.7	-2.4	9.3	6.3	6.1	14.6
요업·토석제품	-4.7	-5.8	-7.5	-9.9	-8.7	-11.2	-7.4	-7.8
화학공업(의약품 제외)	-4.3	-6.0	-4.0	-5.0	-4.1	-4.3	-4.0	-4.2
석탄·석유제품	-2.1	1.8	3.9	-3.7	-0.4	-1.5	0.1	0.2
플라스틱제품	6.0	1.0	-4.3	-5.7	-5.1	-6.8	-2.9	-5.5
펄프·종이·가공품	-0.5	-3.9	-3.4	-2.9	-4.8	-4.5	-6.0	-4.1
식품·담배	4.4	-5.1	-2.5	-1.1	-	-1.2	0.1	-
기타 제조업	-0.1	-1.8	-1.8	-3.5	-3.6	-3.4	-2.6	-4.5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meti.go.jp/english/statistics/>).

주: 2015=100

## 제조업 생산을 견인

- 전기·정보통신기기도 전년동월비 7.9% 증가하면서 수송기기와 더불어 제조업 생산에서 큰 역할

## ● 대부분 업종은 전년동월비 생산 부진 지속

- 특히 전자부품·기기의 생산은 전년동월비 25.4%의 감소를 기록하면서 1분기 가장 부진한 업종

- 범용·업무용 기계는 전년동월비 7.9% 감소하였고, 요업·토석제품도 7.8% 감소하면서 지난해에 이은 생산 부진 지속

- 그 외에도 플라스틱제품(-5.5%), 강철·비철금속(-5.4%), 금속제품(-4.6%) 등 대부분 업종에서 마이너스 실적 기록

#### (4) 유로존<sup>1)</sup>

□ 3월 유로존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0.9% 하락

- 3월 유로존 제조업은 화학, 섬유,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의 생산 부진으로 인해 전년동월비 0.9% 하락

- 화학은 기초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21.3%), 화학섬유(-14.8%), 살충제 및 농약(-13.0%) 등의 생산 감소로 -12.8%의 생산증가율 기록

유로존 업종별 생산 현황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2	11월	12월	1/4	1월	2월	3월
제조업 전체	4.0	8.3	1.4	1.3	2.0	2.9	-0.9
식음료	0.5	-1.2	-2.6	1.2	1.1	0.5	1.8
섬유	-2.4	-9.6	-8.8	-8.3	-8.1	-8.6	-8.1
정유	3.6	-2.4	4.4	0.2	1.0	1.1	-1.6
화학	-7.0	-15.1	-19.6	-13.9	-15.5	-13.2	-12.8
고무·플라스틱	-2.3	-4.1	-6.5	-4.1	-4.3	-4.1	-3.9
1차 금속	-4.4	-6.3	-11.5	-4.6	-6.6	-5.9	-1.5
조립금속	-0.3	-1.6	-0.3	-1.3	-0.5	-2.0	-1.5
기계	4.4	5.0	5.2	3.9	4.7	3.8	3.3
통신기기	2.2	6.4	-5.3	1.2	2.4	0.9	0.6
전자부품	13.5	25.8	10.4	7.8	7.9	12.6	3.5
자동차	3.7	13.7	8.7	20.0	9.2	18.3	32.6
조선	1.5	3.3	0.8	4.8	2.7	2.8	8.5

자료: Eurostat(Index. 2015=100).

1)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의 19개 국가.



- 섬유는 섬유가공(-12.6%), 기타 섬유(-9.0%) 및 방직(-8.5%)의 생산 부진으로 인해 8.1% 하락
- 고무·플라스틱의 경우, 고무는 다소 생산이 증가하였으나(0.9%) 플라스틱 제품(-4.0%)의 부진으로 인해 -3.9% 기록
- 반면, 자동차와 조선의 생산증가율은 각각 32.6%, 8.5%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증가
- 1분기 유로존 제조업은 자동차 및 조선의 생산 호조로 인해 전년동기비 1.3% 상승
  - 자동차는 차체 및 트레일러(-3.0%) 생산은 부진하였으나, 완성차(29.9%)와 부품(6.9%)의 생산이 확대되었고, 조선의 경우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9.0%)과 선박 및 수상부유구조물(4.4%)이 생산 증가를 견인

## Ⅱ

# 국내 실물 경제

### 01 국내 경기

□ 3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1.6% 증가, 소비 증가·투자 감소

- 3월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이 상당폭 증가(전월비 5.1%)하고, 서비스업이 소폭이나마 증가세(0.2%)를 유지하면서 전월비 증가세가 확대(1.6%)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35.1%), 자동차(6.5%), 1차 금속(5.1%) 등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전월비 5.1%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8.0%), 정보통신(-5.4%), 도소매(-0.1%) 등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소폭 증가(0.2%)
  -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전월비 -1.1%)가 전월과 달리 감소 전환한 데다,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7%)와 가전 등 내구재(0.4%)가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0.4%)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전월비 -9.7%)에서 큰 폭 감소하고, 기계류(0.5%)에서 소폭 증가함에 따라 재차 감소(-2.2%)하고, 건설기성액(불변)도 토목(12.2%) 공사 실적 호조에도 건축(-7.6%) 공사 부진 여파로 감소(-3.3%)
  -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과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등 모든 구성지표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2개월 연속 상승(전월비 0.8%)하고, 선행종합지수는 코스피지수를 제외하고 기계류내수출하지수와 건설수주액, 재고순환지표 등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월비 보합세(0.0%)

## 국내 실물 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2월	1/4	1월	2월	3월
GDP성장률	4.1*	2.6*	3.1* (0.3*)	1.3* (-0.4*)		0.8** (0.3**)			
민간소비(국민계정)	3.7*	4.3*	5.7* (1.7*)	3.4* (-0.6*)		4.5** (0.5**)			
설비투자(국민계정)	9.0*	-0.5*	4.1* (7.9*)	7.0* (2.7*)		7.0** (-4.0**)			
건설투자(국민계정)	-1.6*	-3.5*	-2.1* (-0.2*)	-3.1* (0.8*)		1.1** (0.2**)			
전산업생산지수	5.3	4.6	5.5 (0.4)	1.9 (-1.5)	0.7 (0.1)	1.3* (0.9*)	-1.4 (0.0)	3.3* (0.7*)	2.2* (1.6*)
광공업생산지수	8.2	1.4	1.4 (-2.4)	-1.4 (-6.4)	-10.5 (-3.1)	-9.7* (-0.6*)	-13.4 (1.9)	-8.0* (-2.7*)	-7.6* (5.1*)
제조업생산지수	8.4	1.4	1.4 (-2.6)	-6.7 (-6.7)	-11.1 (-3.6)	-9.9* (-0.4*)	-14.0 (2.1)	-8.2* (-2.7*)	-7.5* (5.7*)
서비스업생산지수	5.0	6.7	8.5 (1.7)	5.8 (0.1)	6.6 (1.6)	6.3* (1.2*)	4.8 (-0.5)	8.0* (1.4*)	6.2* (0.2*)
소매판매액지수	5.8	-0.3	-0.9 (0.3)	-2.3 (-0.9)	-3.1 (-0.2)	-0.3* (1.1*)	-1.7 (-1.5)	0.5* (5.2*)	0.5* (0.4*)
설비투자지수	9.6	3.3	7.5 (8.6)	9.6 (-0.2)	3.2 (-6.1)	-0.4* (-8.7*)	-7.4 (-4.8)	4.2* (1.2*)	2.2* (-2.2*)
건설기성액	-6.7	2.7	3.5 (0.8)	6.4 (4.6)	0.4 (-0.9)	13.4* (6.6*)	3.6 (4.8)	21.7* (5.6*)	15.4* (-3.3*)
동행종합지수(2015=1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3.8 99.0	108.3* 100.5*	109.0 100.8	108.9 100.1	108.4 99.4	108.9* 99.4*	108.2* 99.0*	108.8* 99.3*	109.7* 99.9*
선행종합지수(2015=10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6.2 101.3	108.7* 100.0*	109.1 99.9	109.5 99.5	109.4 99.1	109.3* 98.5*	109.4* 98.8*	109.3* 98.5*	109.3* 98.2*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02 고용

### □ 3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1.7% 증가

- 3월 국내 전 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감소세가 이어진 영향에도 농림·어업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확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202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1.1% → 1.7%)
  - 제조업은 전월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세(-1.1%)
  - 농림·어업은 4개월 만에 증가(-3.5% → 2.1%)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2개월 만에 다시 확대(1.8% → 2.3%)
  - 건설업은 4개월 연속 감소세(-0.2% → -1.0%)가 이어진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은 증가율이 소폭 상승(1.8% → 2.0%)

### 산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1월	12월	1/4	1월	2월	3월
전 산업	27,273	28,089	28,425	28,216	28,421	27,808	27,767	27,363	27,714	28,223
전년동기비	1.4	3.0	2.8	2.2	2.3	1.9	1.5	1.5	1.1	1.7
농림·어업	0.9	4.6	5.7	2.0	3.9	-1.1	-1.6	-3.8	-3.5	2.1
제조업	-0.2	3.1	5.0	2.9	2.3	1.9	-0.8	-0.8	-0.6	-1.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	2.9	2.2	2.1	2.2	2.1	2.1	2.3	1.8	2.3
건설업	3.7	1.6	-0.3	0.2	0.5	-0.6	-1.0	-1.9	-0.2	-1.0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5	0.8	1.0	2.4	2.8	2.6	2.2	2.8	1.8	2.0
전기·운수·통신·금융	5.6	3.9	3.9	1.0	0.5	0.7	1.4	1.3	0.2	2.7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3.0	3.9	2.8	2.6	2.6	2.7	2.9	3.3	2.7	2.8
실업률(계절조정, %)	3.7	2.9	2.8	2.9	2.8	3.1	2.7	2.9	2.6	2.7

자료: 통계청.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0.1% → -0.6%)에서 감소하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7.3% → 6.9%),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5% → 1.2%) 등에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3.1% → 4.7%), 정보통신업(4.5% → 6.8%) 등에서 확대된 데 힘입어 전체 증가율이 상승(2.8%)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7%를 기록하면서 3개월 만에 상승

### 03 물가

□ 4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2%, 전년동월비 3.7% 상승

- 4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비주류음료(전월비 -0.6%) 등에서 하락한 반면, 주택·수도·전기·연료(0.0%) 등은 보합세를 보이고, 교통(0.9%)과 음식·숙박(0.7%) 등은 동반 상승세를 보인 영향으로 전월비 0.2% 상승(전년동월비 3.7%)

#### 소비자물가

단위: 전년동기비 상승률,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1월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소비자물가	2.5	5.1	5.9 (1.1)	5.3 (0.4)	5.0 (-0.1)	5.0 (0.2)	4.7 (1.1)	5.2 (0.8)	4.8 (0.3)	4.2 (0.2)	3.7 (0.2)
근원물가	1.8	4.1	4.5 (0.9)	4.8 (1.2)	4.8 (0.3)	4.8 (0.4)	4.9 (1.3)	5.0 (0.7)	4.8 (0.3)	4.8 (0.2)	4.6 (0.4)

자료: 통계청.

주: (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 04 금융·외환

□ 4월 기업대출 증가폭 확대·가계대출 증가세 전환, 5월 초순(5월 2일~10일)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하락

- 4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 증가폭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나며 전월에 비하여 증가폭이 확대(2023년 3월 +5조 9,000억 원 → 4월 +7조 5,000억 원, 대기업 +3조 1,000억 원, 중소기업 +4조 4,000억 원)
  -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배당금 지급 관련 자금 수요 등의 요인으로 지난달에 비하여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자금수요, 은행의 완화적 대출 태도 등으로 인하여 전월 대비 증가폭은 감소하였으나 증가세는 지속
  - CP·단기사채는 기업들의 운영자금 수요 등으로 상당폭 증가하면서 순발행으로 전환되었고, 회사채는 일부 기업의 대규모 회사채 만기 도래 등으로 순상환으로 전환되었으며,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월에 비하여 소폭 축소되었으나 증가세 지속

기업 자금조달 및 은행 가계대출

단위: 기간 중 말잔 증감, 조 원

	2021		2022		2023				2023년 4월 말 잔액
	1~4월	4월	1~4월	4월	1~4월	2월	3월	4월	
은행 원화대출	35.0	11.4	40.3	12.1	26.4	5.2	5.9	7.5	1,196.7
(대기업)	3.2	2.0	10.1	4.4	10.7	0.9	0.1	3.1	227.6
(중소기업)	31.8	9.5	30.3	7.8	15.7	4.3	5.8	4.4	969.1
<개인사업자>	14.0	3.8	10.3	2.6	2.4	1.4	1.0	1.0	445.2
회사채 순발행	11.0	3.2	2.5	0.3	8.8	4.3	2.2	-0.9	..
CP·단기사채 순발행	8.6	2.7	15.3	4.5	6.6	-1.7	-0.3	1.7	63.1
주식발행	9.1	0.2	17.3	3.5	2.1	0.2	0.3	0.1	..
은행 가계대출	36.9	16.2	-0.5	1.2	-5.8	-2.8	-0.7	2.3	1,052.3
주택담보대출	21.3	4.2	8.0	2.0	4.8	-0.3	2.3	2.8	803.6
기타 대출	15.5	11.8	-8.6	-0.9	-10.5	-2.4	-3.0	-0.5	247.3

자료: 한국은행.

- 4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규모가 확대된 여파로 증가세로 전환(2023년 3월 -7,000억 원 → 4월 +2조 3,000억 원)  
-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대출 감소폭이 다소 축소되고,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지면서 지난달에 비하여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으며, 기타대출은 계절적 요인이 소멸되고 주식투자 관련 일부 자금수요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
- 국고채(3년) 금리는 국내외 소비자물가 추이와 국내외 통화당국의 금리 정책 변화, 올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감, 미국 국채금리 변화 등에 따라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채 순매도세가 하락세를 제한하면서 소폭 하락(5월 2일 3.335% → 5월 10일 3.273%, -0.06%포인트)
- 원/달러 환율은 5월 초 연중 최고치(1,338.2원)를 기록한 이후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 둔화하면서 향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상당폭 하락(5월 2일 1,342.1원 → 5월 10일 1,324.8원, -17.3원)

### 주요 금리 및 환율

단위: %, 원

	2021	2022				2023				
	4/4	1/4	2/4	3/4	4/4	1월	2월	3월	4월	5월 10일
국고채(3년)	1.80	2.66	3.55	4.19	3.72	3.33	3.78	3.27	3.29	3.27
회사채(3년, AA-)	2.42	3.34	4.36	5.28	5.23	4.34	4.48	4.07	4.11	4.09
CD(91일)	1.29	1.51	2.04	3.24	3.98	3.63	3.59	3.59	3.52	3.59
CP(91일)	1.56	1.66	2.34	3.30	5.25	4.57	4.06	4.01	4.01	4.01
원/달러	1,188.8	1,212.1	1,298.4	1,430.2	1,264.5	1,231.9	1,322.6	1,301.9	1,337.7	1,324.8
원/100엔	1,030.2	992.7	946.5	993.3	953.2	942.2	967.4	981.4	1000.6	978.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주: 기말 종가 기준.

## 05 수출입

□ 4월 수출 14.2% 감소, 수입 13.3% 감소, 무역적자 26억 달러

● 지난 4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4.2% 감소한 496억 달러, 수입도 13.3% 감소한 52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약 26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

- 수출이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업황의 악화 지속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와 선박, 일반기계 등을 제외하고 대다수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기준 전년동월비 14.2% 감소(7개월 연속 감소세)하고, 지역별로는 대EU와 중동 등지를 제외한 다수 지역으로의 수출이 동반 감소세

- 수입은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감소한 데다, 반도체와 철강제품 등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감소세

\* 원유 수입은 도입단가(85.1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23.5% 하락하고, 도입물량이 8.6% 감소하면서 전체 금액이 약 30.1% 감소한 약 67억 달러를 기록

###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수출	6,444 (25.7)	6,836 (6.1)	1,740 (5.8)	1,590 (-10.0)	548 (-9.7)	1,515 (-12.6)	464 (-16.4)	501 (-7.6)	551 (-13.6)	496 (-14.2)
수입	6,151 (31.5)	7,314 (18.9)	1,923 (22.6)	1,776 (3.1)	596 (-2.5)	1,740 (-2.2)	589 (-2.8)	554 (3.5)	597 (-6.4)	522 (-13.3)
무역수지	293	-478	-183	-186	-48	-224	-125	-53	-46	-26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4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III

## 주요 산업별 동향

### 01 제조업

#### (1) 총괄

□ 3월 생산, 전년동월비 -7.5%, 전월비 +5.7%

- 생산은 자동차(26.8%), 기타운송장비(10.3%) 기계장비(5.2%) 등에서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반도체(-26.8%), 전자부품(-30.4%), 화학제품(-19.5%), 섬유제품(-8.3%), 1차 금속(-1.6%)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7.5%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에서 큰 폭의 감소세(-26.4%)가 이어지고, 중공업(-7.7%)과 경공업(-5.7%)에서도 상당폭의 감소세를 시현
  - 전월비 기준으로 기계장비(-1.8%), 화학제품(-0.9%), 기타운송장비(-4.0%), 섬유제품(-5.1%)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35.1%), 전자부품(9.9%), 자동차(6.5%), 1차 금속(4.6%) 등에서 증가한 영향으로 재차 증가(5.7%)
- 생산능력은 반도체,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2.6%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0.1% 하락
  -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7.8%로 전월과 달리 4.6%포인트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1분기 중 재고 증가폭이 크게 확대(4.4% → 10.9%,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되고,

## 산업별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가중치 (2020)	2021	2022			2023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전월비*
광공업(원지수)	10,000	108.2	109.7	108.4	107.1	99.5	95.6	94.1	108.9	-
전년동기비 증가율	-	8.2	1.4	1.4	-6.4	-9.7	-13.4	-8.0	-7.6	5.1
제조업(원지수)	9,569.5	108.4	109.9	108.8	107.1	98.9	94.2	93.4	109.2	-
전년동기비 증가율	-	8.4	1.4	1.4	-6.7	-9.9	-14.0	-8.2	-7.5	5.7
섬유	113.4	2.0	-3.5	-3.9	-10.1	-8.0	-15.5	0.3	-8.3	-5.1
화학	854.2	8.6	-9.9	-16.9	-20.1	-20.2	-24.0	-16.8	-19.5	-0.9
철강	496.6	5.2	-8.5	-11.9	-23.3	-5.7	-16.6	-0.9	1.1	6.3
반도체	2,023.8	26.8	7.6	1.3	-19.8	-33.8	-33.9	-41.7	-26.8	35.1
컴퓨터·주변장치	32.4	27.5	11.0	14.2	10.8	0.7	-21.4	-0.7	22.2	11.7
통신·방송장비	171.0	23.5	-5.1	4.3	-1.1	17.7	35.1	43.9	-14.9	-31.5
의료·정밀·광학	217.2	17.8	6.6	7.8	5.9	-4.9	-7.9	3.7	-9.6	-8.5
기계장비	737.3	12.1	1.1	7.2	5.4	1.1	-10.1	8.4	5.2	-1.8
자동차	987.5	6.3	9.1	18.8	17.5	21.4	10.7	26.4	26.8	6.5
조선	66.0	-7.2	20.7	21.2	23.4	19.6	13.5	36.2	11.6	-8.1
중공업	-	9.9	1.5	1.2	-7.3	-10.6	-14.7	-9.4	-7.7	6.7
경공업	-	1.3	0.4	2.5	-4.0	-5.4	-10.0	0.0	-5.7	-0.7
제조업ICT	-	19.3	2.2	-2.1	-19.7	-30.5	-29.9	-35.9	-26.4	21.8

자료: 통계청

주: \*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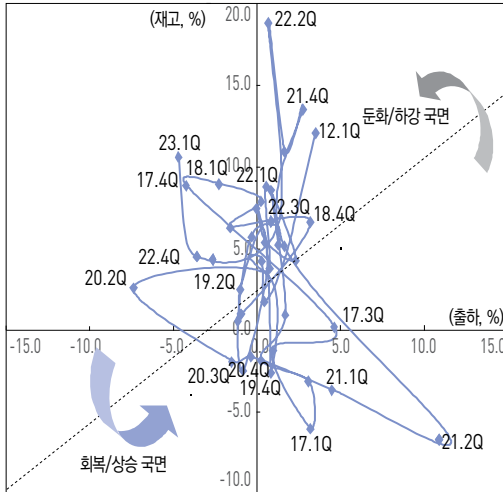
출하 감소폭 역시 확대(-5.7% → -6.7%)

- 평균가동률은 72.2%로 전월보다 3.3%포인트 상승

□ 수출 감소세 지속과 더불어 에너지 관련 품목군을 중심으로 수입 동반 감소, 무역수지 적자 폭은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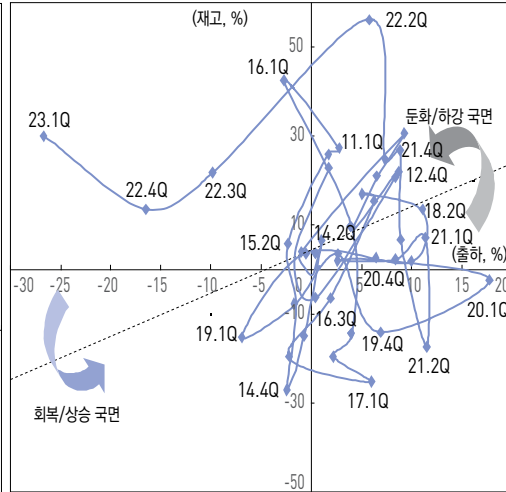
-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을 제외한 대부분 주력산업에서 역기저효과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수출 감소세 지속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 ~ 2023년 1분기)



자료: 통계청.

**제조업ICT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 ~ 2023년 1분기)



자료: 통계청.

###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2				
	연간	연간	3/4	4/4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자동차	24.2	16.4	31.2	29.0	28.1	44.0	21.8	47.0	64.1	40.3
자동차부품	22.2	2.4	7.7	-1.1	-6.3	-3.5	-16.2	13.3	-5.3	-1.6
선박류	16.4	-20.9	5.9	-22.6	76.0	2.6	84.7	-10.5	-24.3	59.2
일반기계	4.6	2.0	0.2	-3.1	-3.9	-2.0	-15.9	12.8	-0.9	8.1
철강	36.9	5.7	-5.2	-17.6	-20.9	-15.8	-25.9	-9.9	-10.7	-10.7
석유화학	54.8	-1.4	-9.8	-25.1	-23.6	-22.6	-24.1	-18.2	-25.1	-23.8
석유제품	57.7	64.9	78.2	18.0	20.8	0.6	14.8	10.9	-16.6	-27.3
섬유	14.0	-4.0	-5.8	-18.7	-17.0	-15.1	-27.7	-4.2	-12.0	-14.9
가전	24.0	-7.4	-15.0	-24.0	-24.8	-8.4	-20.0	4.3	-8.3	-10.2
무선통신기기	45.9	-10.4	-14.9	-19.0	-33.3	-12.7	17.7	-1.8	-42.4	-34.3
컴퓨터	24.7	-4.7	-26.8	-41.0	-34.7	-61.9	-63.8	-64.9	-57.6	-73.3
반도체	29.0	1.0	-3.9	-25.8	-29.1	-40.0	-44.5	-42.5	-34.5	-41.0
디스플레이	18.9	-1.1	-10.0	-20.2	-35.9	-39.5	-36.0	-40.9	-41.6	-29.3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4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2) 자동차

□ 부품공급 문제 개선과 견조한 글로벌 신차 수요로 생산 증가세 지속

- 4월 내수는 지속되는 고금리에 따른 수요 감소로 증가폭이 축소되며, 전년동월비 4.6% 증가 기록
  - 국산차 판매는 공급물량 확대와 신차 효과로 7.3% 증가하였지만, 전월비 8.7% 감소
  - 수입차 등록 대수는 고금리와 공급물량 감소로 9.4%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 기록
- 4월 수출은 친환경 자동차와 중고차 수출 확대로 전년동월비 27.5% 증가하며, 두 자릿수 증가세를 3개월 연속 지속
  - 완성차는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 자동차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2개월 연속 60억 달러 대 수출을 기록하며 40.3% 증가
  - 자동차부품은 미국과 EU의 부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33.8% 감소하며 1.6% 감소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6.3	9.1	18.8	17.5	21.4	10.7	26.4	26.8	-
	생산(전기비)	-	-	8.3	-1.2	5.6	9.5	-4.7	6.5	-
	출하	5.3	8.0	19.1	15.9	21.5	8.7	26.3	29.3	-
	재고	-6.4	23.7	3.2	23.7	23.0	33.2	33.9	23.0	-
	가동률	1.8	5.6	16.0	11.3	14.3	5.8	19.5	17.5	-
	내수판매동향	-9.0	-2.2	5.6	9.5	15.6	4.7	19.5	21.0	4.6
교역 동향	수출	23.6	11.8	23.3	19.3	28.0	9.1	36.3	39.5	27.5
	수입	10.2	8.0	12.8	28.7	18.9	40.1	10.1	10.9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수입승용차등록자료".

주: 1) 2월 및 3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4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 3월 생산은 생산 여건 개선과 견조한 글로벌 수요로 증가세 지속
  - 차량용 반도체 공급 개선과 국내산 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신차 수요로 생산, 출하, 재고가 각각 전년동월비 26.8%, 29.3%, 23.0% 증가
  - 하이브리드 차량과 SUV 차량 생산의 증가로 전월비 생산도 6.5% 증가

### (3) 조선

#### □ 생산지표 회복 지속, 수출은 증가로 전환

-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영향으로 선박 교체 수요가 나타나며, 주요 조선사는 풍부한 수주잔량으로 선별 수주하여 신조선가지수는 168.1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
  -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전방산업인 해운업의 업황 악화에도 친환경 선박 수요에 따른 신조선 발주는 지속
  - 우리나라 수주잔량은 4월 말 기준 약 3,863만 CGT로 전월비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대형조선사는 풍부한 수주잔량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선종 중심으로 선별수주하며 선가 상승을 주도
    - \* 클락슨 신조선가지수: (4월 7일) 165.5 → (5월 5일) 168.1
    - \* 벌크선 운임지수(BDI): (4월 7일) 1492.5 → (5월 5일) 1551.7
    -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SCFI): (4월 7일) 956.9 → (5월 5일) 998.3
    - \* 누적 수주량: (2022년 4월) 637만 CGT → (2023년 4월) 367만 CGT
- 4월 수출은 컨테이너선, 초대형유조선, 가스운반선 등 다수의 고부가가치 선박이 인도되었고, 고선가 시기에 수주한 일부 선박이 수출되며 59.2% 증가
  - 선가 상승 시작 시점인 2021년 상반기 수주한 컨테이너선과 초대형유조선이 인도되며 높아진 선가도 수출에 일부 반영
- 3월 수입은 선박이 45.2%, 선박용 부품이 26.0% 줄어들며 수입 감소를 견인하였고, 선박용 엔진의 수입 역시 소폭 줄어들며 30.1% 감소로 전환
  - 대중국 벌크선 수입이 100%, 대핀란드 선박용 부품 수입이 97%, 선박용 압축점화 엔진도 12.2% 감소

##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7.2	20.7	21.2	23.4	19.6	13.5	36.2	11.6	-
	생산(전기비)	-	-	-0.2	8.1	1.3	0.1	8.2	-8.1	-
	출하	-8.1	14.0	11.4	9.6	1.2	-3.9	15.4	-5.7	-
	가동률	-0.7	23.1	21.1	25.4	16.1	12.1	31.2	7.3	-
교역 동향	수출	16.4	-20.9	5.9	-22.6	-45.3	84.7	-10.5	-35.7	59.2
	수입	6.1	-13.2	-32.7	-2.4	-38.6	-69.3	22.2	-30.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2월 및 3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4월 수출은 추정치.

### (4) 일반기계

#### □ 생산 증가세 지속, 수출은 선진권 수출 호조로 증가 전환

- 3월 생산은 전년동월 생산실적 부진(-5.9%)의 기저효과로 5.2% 증가
  - 내수와 수출 모두 전년동월비 각각 0.9%씩 감소하여 전월비 생산은 -1.8%를 기록하였으나, 전년동월 생산 부진(-5.9%)의 역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기준 5.2% 증가
    - \* 일반기계 내수출하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1월) -11.8 → (2월) 8.0 → (3월) -0.9
    - \* 일반기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1월) -9.8 → (2월) 2.2 → (3월) 5.7
    - \* 국내 기계수주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1월) -1.2 → (2월) -14.0 → (3월) -9.9
  - 재고율(재고/출하)은 출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재고 누적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160.5%를 기록
    - \* 재고율(%): (2023년 1월) 145.0 → (2월) 150.3 → (3월) 160.5
  - 가동률은 생산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12.3% 상승
- 4월 수출은 대중국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권 수출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비 8.1% 증가

##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2.1	1.1	7.2	5.4	1.1	-10.1	8.4	5.2	-
	생산(전기비)	-	-	8.6	0.3	-8.4	-8.5	4.8	-1.8	-
	출하	11.6	0.3	7.1	4.9	-1.1	-10.4	5.7	1.5	-
	재고	18.3	20.1	16.0	20.1	31.0	19.0	23.8	31.0	-
	가동률	7.3	6.2	11.0	9.7	9.1	-1.3	17.3	12.3	-
교역 동향	수출	4.6	2.0	0.2	-3.1	-2.0	-15.9	12.8	-0.9	8.1
	수입	9.6	0.7	4.2	-3.3	0.6	1.4	3.1	-2.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2월 및 3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4월 수출은 추정치.

- 미국, 유럽, 중동 지역 수출은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플랜트·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주로 양호한 실적을 유지
- 반면,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가 지속되며 크게 부진
  - \* 일반기계 대중국 수출 증가율(%): (2022년 8월) -13.1 → (2023년 1월) -42.7 → (3월) -26.6
  - \* 4월 주요국 수출액 및 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미국(9.3, 10.1%), 중국(5.6, -11.7%), 중동(1.9, 70.6%)
- 3월 수입은 28억 1,700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2.1% 감소
  - 주요 품목별로는 목재·광물·유리가공기계(226.4%), 식품가공포장기계(35.1%), 압연기·용접기·구조설비(16.1%), 원동기 및 펌프(15.0%)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농기계(-33.2%), 섬유·화학기계(-28.2%), 금속공작기계(-22.5%) 등은 크게 감소

## (5) 철강

### □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세 전환,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지속

- 3월 철강 생산은 계절적 성수기 진입 및 조선업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로 전년동월비 1.1% 증가하며 증가세 전환
  -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라 전월비 생산은 2월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업 정상화에 따라 가동률 지수도 증가세 전환
  - 품목별로는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H형강, 철근 등의 봉형강 생산은 감소한 가운데, 조선업 경기 회복 및 포스코 조업 정상화에 따라 중후판 생산은 큰 폭으로 증가
    - \* 주요 품목별 생산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철강재 계(6.7%), 봉형강류(-6.5%), H형강(-10.6%), 철근(-5.5%), 선재(4.0%), 판재류(13.7%), 열연강판(37.8%), 중후판(12.7%), 용융아연도강판(17.6%), STS 핫코일(-53.2%), STS냉연강판(-29.3%), 전기강판(-20.9%), 강관(-5.4%)
-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수출단가 약세에 따른 기저효과와 대중, 대아세안 수출여건 부진으로 전년동월비 10.7% 감소
  - 4월 철강재 수출단가는 톤당 1,273달러로 전년동월비 10.9% 하락하며 금액기준 수출 감소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 지역별로는 EU지역의 인프라 수요 확대로 대EU 수출이 전년동월비 16.1% 증가한 반면 중국, 아세안,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으로의 수출은 큰 폭의 감소세 시현
    - \* 철강재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2년 4월) 1,451 → (2023년 4월) 1,273(-10.9%)
    -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중국(-17.4%), 미국(-4.1%), EU(16.1%), 아세안(-16.1%), 중남미(-20.1)
- 3월 수입은 수입단가 하락과 일본, 미국, 베트남 등 주요 수입국에서의 수입량 감소로 전년동월비 12.4% 감소
  - 3월 철강재 수입단가는 톤당 1,017달러로 지난해 2월(1,115달러/톤) 대비 8.8% 하락
  - 대중국 수입단가 약세로 중후판 등 중국산 강재의 수입이 확대된 반면 국내 건설수요 부진으로 형강, 철근 등의 수입은 전년동월비 10% 이상 감소



###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5.2	-8.5	-11.9	-23.3	-5.7	-16.6	-0.9	1.1	-
	생산(전기비)	-	-	-9.7	-15.4	5.8	11.0	7.2	6.3	-
	출하	4.5	-7.0	-8.5	-13.5	-4.9	-15.0	1.8	-0.9	-
	재고	14.4	-9.8	9.3	-9.8	1.5	-3.8	-2.7	1.5	-
	가동률	5.5	-8.7	-12.3	-23.9	-6.4	-17.2	-1.5	0.5	-
교역 동향	수출	36.9	5.7	-5.2	-17.6	-15.8	-25.9	-9.9	-10.7	-10.7
	수입	50.1	2.0	-20.8	-17.8	-8.6	-11.9	-0.4	-12.4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2월 및 3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4월 수출은 추정치.

-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입이 전년동월비 16.2% 증가한 데 반해 일본, 미국, 대만, 베트남 등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은 10~40%까지 감소하며 2월 대비 수입 감소폭 확대를 견인

\* 주요 지역별 수입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중국(16.2%), 일본(-13.7%), 미국(-37.0%), 대만(-31.2%), 베트남(-42.8%)

\* 주요 품목별 수입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열연강판(14.9%) 중후판(16.9%), 선재(-18.2%), 아연도강판(11.9%), 형강(-27.7%), 철근(-19.0%)

## (6) 정유

□ 수출은 물량 및 단가 하락으로 2개월 연속 감소

● 3월 생산은 내수와 수출이 동반 확대되며 전년동월비 1.6% 증가

- 내수는 항공유, 휘발유 및 경유 등 운송용 석유제품의 수요 회복으로 전년동월비 3.0% 확대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항공유(37.9%), 휘발유(32.3%), 경유(22.6%), 윤활유(21.2%), 아스팔트(16.3%), 나프타(1.6%), 병커C유(-21.0%), LPG(-21.6%)

##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3.7	1.8	4.5	-2.1	0.2	-0.5	-0.6	1.6	-
	생산(전기비)	-	-	2.4	-3.1	0.2	2.2	1.2	3.0	-
	출하	-0.7	2.3	8.0	-1.1	4.4	2.3	3.3	7.7	-
	재고	12.6	-2.5	3.5	-2.5	-7.2	2.6	3.9	-7.2	-
	가동률	1.8	1.9	4.6	-2.0	0.5	0.3	-0.3	1.5	-
	내수판매동향	7.0	1.1	0.2	-2.0	-2.9	-8.0	-3.2	3.0	-
교역 동향	수출	57.7	64.9	78.2	18.0	0.6	14.8	10.9	-16.6	-27.3
	수입	86.0	10.9	-4.7	-20.1	-13.9	-12.3	-10.1	-19.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2월 및 3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4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당월.

- 수출물량은 항공유 및 윤활유의 수출 확대로 전년동월비 2.3% 증가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항공유(66.5%), 윤활유(4.3%), 나프타(40.2%), 휘발유(-17.9%), 경유(-2.3%), 아스팔트(-15.7%), LPG(153.1%), 병커C유(-37.4%)

● 4월 수출액은 37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비 27.3% 감소

- 수출물량은 전년동월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수출단가는 26.4%로 큰 폭 하락

\* 국제유가(두바이유 달러/배럴, 상승률): (2022년 4월) 102.8 → (2023년 4월) 83.4(-18.8%)

\* 수출단가(달러/배럴, 상승률): (2022년 4월) 137.2 → (2023년 4월) 101.0(-26.4%)

\* 수출액(억 달러, 증가율): (2022년 4월) 51.7 → (2023년 4월) 37.6(27.3%)

- 수출액은 물량과 단가 동반 하락으로 전년동월비 큰 폭으로 감소

-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6.0% 증가하였으나 미국 및 일본 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 감소

\* 지역별 수출 증가율(%): EU(219.3), 중동(106.2), 중국(6.0), 중남미(-95.3), 일본(-51.9)

## (7) 석유화학

□ 수요 감소로 제품 스프레드 회복세가 둔화되었고, 생산 및 수출 감소세 지속

- 3월 석유화학제품 국내 생산 및 출하량은 전년동월비 각각 19.5%, 13.8% 감소했고 가동률 하락(-16.7%)의 영향으로 일부 재고 감소
  - 3월 중 국내 NCC 업체들의 에틸렌 톤당 스프레드는 274달러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
  - 농업용 필름(PE계열 제품)과 건축자재(PVC, 우레탄, 실리콘 등)를 중심으로 재고 확보를 위한 수요 증가
  - 화학섬유 수요는 감소하며 합섬원료 생산 및 수출 규모 감소
  - 자동차 타이어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합성고무 제품 가격도 전년비 하락
- 4월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주요 수출국향 수출량 감소와 수출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23.8% 감소
  - 동월 국제유가와 수출단가는 전년동월비 각각 18.8% 및 17.8% 하락
    -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2022년 4월) 102.8 → (2023년 4월) 83.4(-18.8%)

석유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8.6	-9.9	-16.9	-20.1	-20.2	-24.0	-16.8	-19.5	-
	생산(전기비)	-	-	-12.8	-4.8	2.2	3.1	4.0	-0.9	-
	출하	6.1	-9.5	-13.8	-16.7	-13.3	-16.1	-10.0	-13.8	-
	재고	21.9	-3.9	-5.0	-3.9	-2.4	-4.6	-3.5	-2.4	-
	가동률	8.2	-10.1	-15.9	-18.9	-18.7	-22.8	-16.2	-16.7	-
교역 동향	수출	3.9	-4.1	-9.7	-25.1	-22.5	-24.1	-18.2	-25.1	-23.8
	수입	36.1	-2.3	-0.9	-21.4	-16.8	-22.3	-15.2	-12.8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2월 및 3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4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통계는 '석유화학제품(MTI 21)' 당월.

- \* 석유화학 수출단가(달러/톤): (2022년 4월) 1,667 → (2023년 4월e) 1,370(-17.8%)
- 중국 섬유산업 업황 부진으로 핵심 중간재인 한국산 PX 제품 수입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중국향 수출액은 전년비 23% 감소
- 동아시아 석유화학시장 내 과잉공급 상황 지속과 제품 스프레드 위축에 따른 국내 생산량 감소로 수입액 감소세 견인
- \* 4월 주요국 수출액 및 증가율(억 달러, 전년동기비): 중국(11.2, -23.3%), 아세안(3.5, -43.4%), EU(4.3, -43.4%)

## (8) 섬유

### □ 내수 개선 불구 수출 부진 심화에 따른 생산 감소

- 3월 생산은 내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요 감소로 전년동월비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전월비 생산 감소폭도 확대되어 부진세 심화 추세
  - 3월 의류 소매판매액지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내수 개선 지속
    - \* 의류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불변, 전년동월비): (1월) -0.6% → (2월) 15.4% → (3월) 10.8%
    - \* 품목별로는 백화점 매출 동향에 따르면, 봄철 여행 및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여성캐주얼, 아동·스포츠 중심으로 대폭 증가 추세
    - \* 반면 백화점의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 판매액은 자산가치 하락 및 고금리 지속 등으로 지난 1월 전년동월비 -7.2%에 이어 2월 2.1%로 소폭 증가
  - 품목별 생산은 섬유소재, 의류 등 모든 품목에서 감소하여 국내 제조 활동 위축
    - \* 봉제의복 증가율(전년동월비): (1월) -9.7% → (2월) -0.5% → (3월) -0.4%
    - \* 원사 증가율(전년동월비): (1월) -13.6% → (2월) 0.2% → (3월) -11.0%
    - \* 편물 증가율(전년동월비): (1월) -14.2% → (2월) -3.5% → (3월) -6.8%
    - \* 염색가공 증가율(전년동월비): (1월) -21.5% → (2월) -7.8% → (3월) -11.4%
    - \* 화학섬유 증가율(전년동월비): (1월) -35.9% → (2월) -26.5% → (3월) -31.7%
- 4월 수출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및 경기 부진 등 악재로 의류 수요 약화 및 해외 생산기지향 의류용 소재 수출이 동반 하락하며 감소세 확대

##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4.1	-3.2	-1.9	-9.2	-8.5	-15.1	-2.2	-7.5	-
	생산(전기비)	-	-	-1.8	-10.5	-9.7	-14.2	-5.3	-9.3	-
	출하	3.8	-5.7	-4.3	-10.8	-6.2	-12.2	-2.1	-4.4	-
	재고	-5.7	-0.1	-3.3	-0.1	0.8	0.7	-0.1	-0.8	-
	가동률	7.7	5.3	6.3	-4.4	-4.4	-10.4	2.5	-4.8	-
교역 동향	수출	14.0	-4.0	-5.8	-18.7	-15.1	-27.7	-4.2	-12.0	-14.9
	수입	12.9	8.8	17.0	-5.3	-0.8	-3.1	-3.0	3.4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2월 및 3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4월 수출은 추정치.

- 미국, EU 등의 의류 수요 부진으로 글로벌 브랜드의 의류용 소재 소싱 오더가 감소하며  
대아시아 수출이 큰 폭 감소

- 대미 수출은 성장 둔화, 고물가, 고금리, 은행권 불안 등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수요 부진으로 감소 지속

\* 섬유 수출액 및 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2022년 4월) 11.0(-0.1%) → (2023년 4월)  
9.3(-14.9%)

\* 4월 1~25일 수출액 및 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아세안(2.3, -24.2%), 미국(1.0, -19.3%),  
EU(0.9, -4.5%)

## (9) 가전

□ 국내외 수요 둔화로 생산과 수출 모두 감소세 지속

● 3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13.2% 감소, 전월비로는 5.0% 감소

-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면서 생산은 두 자릿수 감소를 지속

- 생활가전과 영상음향기기 분야의 생산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는 반면, 조명기기는

##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8	-5.3	-13.8	-13.3	-19.0	-25.4	-18.3	-13.2	-
	생산(전기비)	-	-	-12.8	-7.1	6.0	3.1	8.3	-5.0	-
	출하	-10.3	-0.6	-7.4	-8.4	-10.3	-16.1	-2.0	-12.3	-
	재고	1.2	-5.3	-4.3	-11.0	-12.7	-3.4	-17.3	-16.5	-
	가동률	1.3	-9.6	-16.2	-21.1	-15.8	-24.0	-13.9	-9.2	-
교역 동향	수출	24.0	-7.4	-15.0	-24.0	-8.4	-20.0	4.3	-8.3	-10.2
	수입	19.1	-5.0	-1.7	-14.5	-10.3	-15.8	-18.3	3.9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2월 및 3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4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 기기(생활가전), 조명기기.

연초 판매 증가로 생산이 증가세를 유지

- 판매 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로 생활가전 재고가 크게 줄면서 전체 재고는 전년동월비 16.5% 감소

- 전반적인 판매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가동률은 하락세를 지속

- 4월 수출은 선진국 소비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역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비 10.2% 감소

- 미국, EU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 실적은 양호했으나, 중국 등의 수요 부진으로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

- 수출이 코로나19 이전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역기저효과에 따른 감소폭이 큰 편

\* 4월 수출액(백만 달러): (2019년) 622 → (2021년) 711 → (2022년) 755 → (2023년) 678

- 3월 수입은 일부 제품의 국내 수요 증가로 전년동월비 3.9% 증가

- 전반적인 내수 부진으로 중국, 베트남, 태국, 일본 등의 수입은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진공청소기, 스피커, 냉장고 등 해외 생산 제품의 수요 증가로 전체 수입은 증가로 전환

- 진공청소기(말레이시아), 스피커(중국, 베트남), 기타조명기기(중국, 베트남, 독일, 미국), 냉장고(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수입 증가

\* 진공청소기 수입은 말레이시아에 생산거점을 둔 다이슨(Dyson) 제품 수요가 주요하며 전년 동월비 6,536% 증가

## (10) 무선통신기기

### □ ICT 경기 침체 2분기 지속, 4월 수출 34.3% 감소

- 1월 17.7% 증가했던 수출은 3월 전년동월비 42.4% 및 4월 34.3% 등 2개월 연속 대폭 감소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및 퍼스트리퍼블릭 사태 등 단기간 금리 급상승에 따라 금융 충격 우려 및 세계적 경기 둔화 추세가 심화되며 ICT 전방산업 수요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다소 지연될 전망
  - 스마트폰 수요의 본격적 회복은 향후 3~6개월 즉, 3분기 이후로 예상되며,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은 전년비 14% 이상 감소
    - \* 지역별로는 중국향 수출이 전년동월비 42.3% 감소, 대EU 수출이 47.3% 큰 폭 감소하고, 아세안 지역 수출 역시 22.8% 감소
    - \* IDC(2023. 5)에 따르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14.6%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2년 하반기 전망치인 -12.7%를 소폭 상회
- 3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14.9% 감소하고 출하 역시 15.7%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고는 31.8% 증가하고 가동률은 20.5% 하락
  - 1분기 국내외 주요 기업의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와 공격적 판촉 활동의 효과가 점차 소진되고, 또한 우리 기업들의 보급형 모델 주요 시장인 유럽, 아세안, 유럽 내수시장 수요가 감소한 영향
    - \* 카운터포인트리서치(2023. 5)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8,000만 대로 2022년 1분기 3억 2,600만 대 대비 약 4,500만 대 이상 감소한 수준
  - 카날리시스(2023. 4)에 따르면 전반적인 수요 감소 와중에도 삼성전자는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22%)를 탈환

- \* 1분기 애플은 시장점유율 21%로 2위였지만, 주요 제조사 중 판매량 감소폭이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
- \* 중국 3대 브랜드(샤오미, 오포, 비보) 3사 점유율 합계는 약 30%에 달하며, 중소 브랜드까지 합할 경우 약 40% 이상으로 안드로이드 OS 탑재 휴대폰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점유율 잠식 우려 점증
- 3월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전년동월비 2.5% 감소하고 전월비 0.1% 증가하였으며, 웨어러블과 IoT 회선 가입 수 역시 감소
  - 가입자 기반 단말과 사물지능통신(IoT) 회선 수는 전년동월비 각기 9.8%, 20.3% 감소하였으며 전월비로는 각기 0.6%, 1.6% 증가
  - \* 웨어러블 기기 회선 수는 전년동월비 29.1%로 큰 폭 감소했으며, 태블릿 PC 회선 수는 0.5% 소폭 증가
  - \* 차량관제 및 원격관제 회선 수는 전년동월비 각각 22.4%, 19.9% 감소
  - \* 무선결제기기 가입 회선 수는 전년동월비 13.9% 감소
- 3월 수입은 휴대폰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36.5% 감소

### 무선통신기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3.5	-5.1	4.3	-1.1	17.7	35.1	43.9	-14.9	-
	생산(전기비)	-	-	9.9	-2.4	15.3	110.5	-16.4	-31.5	-
	출하	25.0	-2.1	6.7	3.1	12.8	40.9	20.2	-15.7	-
	재고	0.1	5.8	-0.4	5.8	31.8	23.0	11.1	31.8	-
	가동률	28.7	-6.1	0.9	-15.5	10.3	27.7	32.1	-20.5	-
교역 동향	수출	45.9	-10.4	-14.9	-19.0	-12.7	17.7	-1.8	-42.4	-34.3
	수입	17.2	-7.2	0.1	-20.2	-3.8	41.6	-4.0	-36.5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2월 및 3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4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



- 국내 생산 감소에 따라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입이 전년동월비 11.1% 감소하였으며, 외국 주요 기업 제품 교체 수요 소진과 경기 부진에 따라 휴대폰 수입 역시 73.2%로 대폭 감소
- \* 스마트폰 부품 수입은 전년동월비 73.6% 감소

## (11) 반도체

### □ 반도체 경기 부진 지속

- 3월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비 26.8% 줄었고 출하도 18.3% 줄어들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감소폭은 축소
-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비 생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그 폭은 축소되었고 전기비 실적은 35.1% 증가하여 조금씩 안정을 찾는 모양새
- 가동률은 전기비 32.7% 하락하였으며, 최근 반도체 제조기업의 감산 움직임으로 인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
- \* 메모리반도체 시장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의 추가 감산 가능성도 높음.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6.8	7.6	1.3	-19.8	-33.8	-33.9	-41.7	-26.8	-
	생산(전기비)	-	-	-10.0	-15.8	-9.1	-5.6	-17.1	35.1	-
	출하	21.5	0.5	-9.2	-17.5	-32.9	-43.8	-41.2	-18.3	-
	재고	27.1	15.9	24.6	15.9	43.4	39.5	33.2	43.4	-
	가동률	6.0	-3.4	-12.0	-28.1	-39.4	-40.4	-46.0	-32.7	-
교역 동향	수출	29.0	1.0	-3.9	-25.8	-40.1	-44.5	-42.5	-34.5	-41.0
	수입	22.1	21.8	23.6	7.7	-10.4	-10.4	-10.4	-10.5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2월 및 3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4월 수출은 추정치.

- 2023년 4월 수출액은 63억 8,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41.0% 감소하였고 장기간의 증가세가 꺾인 이후 9개월 연속 감소
  - 수출은 2020년 7월 이후 전년동월비 25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이후 감소폭이 점차 확대
  - D램을 비롯하여 국내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단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우리 반도체 수출실적에 악영향
  - PC, 스마트폰 등 반도체 주요 수요산업이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아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반도체 수입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장기간 증가하였으나, 국내 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최근 4개월 연속 감소 중

## (12) 디스플레이

### □ 주요 수요제품 교체 주기 연장으로 수출 부진 지속

- 3월 생산은 주요 수요제품의 재고 증가로 인한 디스플레이 수요 축소로 감소
  -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TV, 스마트폰 등 주요 수요 제품의 재고 증가가 패널 수요 감소로 이어져 생산은 전년동월비 30.4% 감소하였으며 출하량과 가동률도 하락하여 생산 둔화 지속
  - IT용 패널,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신규 시장 성장이 나타나고 있으나 규모가 미미하여 생산 부진이 지속될 전망
- 4월 주요 제품 교체 수요 축소로 인한 패널 수요 감소로 수출은 29.3% 감소하였으며, 11개월 연속 감소세
  - LCD 수출은 패널 평균 가격 하락과 생산 규모 축소로 45.2% 감소하였으며, 7개월 연속 감소 중
  - 스마트폰 교체주기 연장에 따른 중소형 OLED 수요 하락으로 이어져, OLED 수출은 21.9% 감소하여, 10억 달러 이하 수출이 4개월 지속

##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4.7	-14.7	-15.9	-26.3	-33.0	-32.8	-36.3	-30.4	-
	생산(전기비)	-	-	-8.1	-7.7	-9.6	-3.3	-7.2	9.9	-
	출하	-9.5	-17.5	-19.0	-29.0	-30.5	-33.4	-38.2	-20.4	-
	재고	38.5	-24.9	1.9	-24.9	-30.3	-17.2	-16.8	-30.3	-
	가동률	-7.3	-6.5	-6.4	-8.2	0.3	0.2	-8.6	8.3	-
교역 동향	수출	18.9	-1.1	30.5	-19.9	-19.9	-36.0	-40.9	-41.6	-29.3
	수입	-12.8	30.9	79.8	31.2	31.2	-21.9	-29.6	-16.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2월 및 3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4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을 이용.

- 주요 수요지역인 아세안, 중국, 유럽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반적인 수요 부진 지속

\* 지역별 증가율(%): 아세안(-18.1), 중국(-50.7), 유럽(-44.4)

## 02 서비스산업

## (1) 생산

□ 3월 생산, 전년동월비 6.2% 증가

- 3월 생산은 운수·창고, 숙박·음식점, 금융·보험, 보건·사회복지,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호조로 인해 전년동월비 6.2% 증가
- 서비스산업 중 생산, 고용 모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11.9%)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생산 비중이 큰 도매 및 상품 중개업(0.5%), 소매업(자동차 제외, -0.6%)이 소폭 증가 또는 하락하여 0.4% 증가

- 운수·창고업은 육상운송업(11.2%)과 항공운송업(245.3%)의 호조로 인해 18.2% 증가  
- 그러나 경기 침체에 따른 화물 물동량 감소로 해상운송업(-11.1%), 항공화물운송업(-38.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1.2%)의 감소세는 지속
-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업(22.5%), 음식점 및 주점업(17.5%)이 모두 호조세를 보이며 18.2% 증가  
- 숙박업의 경우 방한 외래관광객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호텔업(28.2%)이 숙박업의 호조세 주도  
\*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전년동월비 1월 430.8%, 2월 379.3%, 3월 727.3%로 크게 증가<sup>2)</sup>
- 정보통신업은 출판업(-8.8%), 방송업(-10.4%), 정보서비스업(-24.8%)의 부진으로 4.4% 감소  
- 방송업의 감소폭은 최근 3년 이내 가장 큰 수준이며, 방송업 중에서도 지상파 방송업(-20.3%)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생산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은 금융업(12.8%), 보험 및 연금업(6.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7.7%) 등 모든 업종의 호조세로 인해 11.5% 증가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연구개발업(-2.2%)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문서비스업(2.3%),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7.8%)의 실적 증가에 따라 2.2% 증가
-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은 사업지원서비스업(8.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6.2%)의 호조에 따라 7.0% 증가  
- 사업지원서비스업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세 자릿수의 증가율을 유지하며 사업지원서비스의 증가세를 주도
- 교육서비스업은 초·중·고등 교육기관의 생산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일반 교습학원(-6.3%), 학원(-1.7%)의 저조에 따라 0.2% 감소

2) 관광지식정보시스템(know.tour.go.kr) 입국관광통계.

## 서비스산업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4/4	1/4	1월	2월*	3월*
서비스 총지수	100.0	105.2	112.4	117.9	111.7	109.8	107.7	117.7
상승률	-2.0	5.2	6.8	5.6	6.0	4.8	8.0	6.2
전기비	-	-	-	0.1	1.2	-0.5	1.4	0.2
도·소매	-2.6	5.3	2.6	0.2	1.1	2.0	3.5	0.4
운수·창고	-14.1	4.2	17.7	17.7	17.2	12.4	21.2	18.2
숙박·음식점	-18.4	1.9	16.9	9.8	16.4	8.5	23.3	18.2
정보통신	1.5	12.2	1.8	-1.0	-2.0	0.0	-1.3	-4.4
금융·보험	14.0	8.0	8.4	12.5	11.1	7.9	14.5	11.5
부동산	5.5	2.3	7.9	6.0	4.3	1.6	5.4	5.8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0	2.8	2.0	-0.3	1.5	-0.8	2.5	2.2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9.8	2.3	5.2	4.2	5.8	4.7	5.9	7.0
교육	-4.5	1.5	1.2	0.3	0.5	1.5	0.4	-0.2
보건·사회복지	1.5	5.1	7.2	6.3	5.7	6.8	5.3	4.9
예술·스포츠·여가	-32.6	15.4	44.8	26.6	19.7	10.3	32.5	30.7
협회·수리·개인서비스	-8.3	1.9	4.4	5.9	12.9	9.3	13.2	15.8
수도·하수·폐기물처리	3.2	2.3	-4.7	-4.8	7.7	3.7	11.5	8.6
지식서비스	3.1	6.0	4.7	4.5	4.4	4.8	5.5	3.9

자료: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 해당 업종.

2) 전년동기비는 불변지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병원, 의원 등의 보건업(4.7%), 사회복지서비스업(5.3%) 등 모든 업종이 호조세를 보이며 4.9%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30.7%)과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15.8%)도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34.8%), 스포츠 및 오락관련서비스업(28.0%)의 실적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며,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도 협회 및 단체(23.5%), 개인서비스업(15.0%) 등이 크게 증가

- 지식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의 실적 둔화로 인해 1월, 2월에 비해 낮은 3.9% 증가

## (2) 고용

### □ 3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58만 1,000명(3.0%) 증가

- 3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보건·사회복지, 숙박·음식점, 정보통신, 예술·스포츠·여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에서 58만 1,000명(3.0%) 증가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24만 8,000명(9.5%) 증가하였으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의 42.7%를 차지
- 숙박·음식점업은 16만 6,000명(7.9%) 증가하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다음으로 많은 취업자 수 증가를 기록
  -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 1월부터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
  - \* 3만 3,000명(2022년 5월) → 25만 명(2022년 12월) → 21만 4,000명(2023년 1월) → 18만 2,000명(2023년 2월) → 16만 6,000명(2023년 3월)
- 공공행정·국방(8만 3,000명, 7.3%), 정보통신(5만 1,000명, 5.2%), 예술·스포츠·여가(5만 명, 10.8%), 전문·과학·기술서비스(4만 7,000명, 3.7%), 협회·수리·개인서비스(2만 3,000명, 2.1%)도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2021년 12월 6만 1,000명 증가 이후 가장 많은 취업자 수 증가 기록
- 취업자 수가 감소한 업종으로는 도·소매업이 7만 명(-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운수·창고업(4만 2,000명, -2.5%) 순
  - 운수·창고업은 작년 12월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소폭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4/4	1/4	1월	2월*	3월*
총취업자 수	18,866	19,173	19,752	19,890	19,788	19,515	19,813	20,033
증가율	-1.3	1.6	3.0	2.2	2.4	1.2	4.2	3.0
전기비	-	-	-	-0.1	-0.5	-1.1	1.5	1.1
도·소매	-4.4	-4.3	-1.2	-2.1	-2.0	-1.9	-2.4	-2.1
운수·창고	3.6	7.0	4.4	-0.4	-2.1	-2.4	-2.2	-2.5
숙박·음식점	-6.9	-2.1	4.0	9.6	9.0	10.2	8.7	7.9
정보통신	-1.6	6.4	8.9	5.7	6.4	8.6	8.0	5.2
금융·보험	-2.7	2.8	-3.3	-2.6	1.5	-1.0	0.1	0.6
부동산	-7.0	2.7	4.0	0.4	-0.4	-0.7	1.7	-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6	4.7	5.7	3.7	3.4	2.8	2.8	3.7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2.7	3.7	1.9	-0.7	-0.6	-3.0	-1.3	0.2
공공행정·국방	3.3	2.8	6.1	5.8	3.1	1.4	13.0	7.3
교육	-4.6	2.3	3.4	1.6	0.1	-2.5	0.3	2.4
보건·사회복지	5.9	8.5	7.1	5.8	7.8	5.5	18.7	9.5
예술·스포츠·여가	0.3	-5.8	3.2	2.5	6.0	-2.9	8.9	10.8
협회·수리·개인서비스	-3.5	-4.5	-1.4	0.5	2.5	-0.3	4.6	2.1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2.9	10.5	-8.9	-15.1	-13.9	-18.9	-14.5	-11.4
지식서비스	0.2	5.4	5.0	3.5	4.3	2.7	7.8	5.3

자료: 통계청.

주: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 지식서비스산업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의 영향으로 39만 5,000명(5.3%) 증가

### (3) 서비스수지

#### □ 3월 서비스수지 19억 400만 달러 적자

- 3월 서비스수지는 가공서비스, 유지보수, 여행, 지식재산권사용료, 기타사업서비스 등의 적자로 인해 19억 400만 달러 적자 기록
  - 운송, 여행수지의 적자 규모가 감소하여 지난달에 비해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약 1억 달러 이상 감소하였지만, 분기별로는 작년 4분기와 비교해 1분기 적자 규모가 3배 이상 증가
- 운송수지는 지난달에 이어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적자 규모가 2억 달러 이상 크게 감소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4/4	1/4	1월	2월	3월
서비스수지	-16,190	-3,108	-5,548	-2,280	-7,203	-3,269	-2,030	-1,904
가공서비스	-5,685	-5,115	-6,048	-1,600	-1,653	-710	-415	-527
유지보수	-913	-1,006	-1,621	-538	-419	-150	-119	-151
운송	2,132	15,427	13,121	1,363	-118	120	-222	-17
여행	-5,630	-6,226	-7,929	-2,380	-3,235	-1,487	-1,009	-739
건설	4,770	4,100	5,253	1,555	1,068	362	316	391
보험	-336	-295	40	174	1	-4	-4	8
금융	1,757	1,647	310	-27	113	69	-120	165
지식재산권사용료	-3,034	-3,059	-3,751	-982	-1,374	-952	3	-426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1,604	3,515	1,987	-85	910	275	342	293
기타 사업서비스	-10,410	-12,222	-7,585	-168	-2,662	-813	-929	-920
개인·문화·여가	184	783	1,182	483	285	34	180	71
정부	-629	-658	-506	-76	-118	-14	-51	-52

자료: 한국은행.

주: BPM6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표 체계 변경 내용을 따름.



- 해상운송수지 적자 규모가 약 8,000만 달러 이상 감소한 반면, 항공운송수지 흑자 규모는 약 1억 2,000만 달러 이상 증가하여 적자 규모가 대폭 감소
- 여행수지는 지난달에 비해 적자 규모가 2억 7,000만 달러 감소
  - 여행지급의 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방한 외래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일반여행수입이 2억 5,000만 달러 이상 증가하여 적자 규모가 감소
- 금융서비스 수지는 지난달 적자에서 1억 6,500만 달러 흑자로 전환
  - 수수료 및 금융서비스,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이 각각 1억 달러 이상 증가한 반면, 금융서비스 지급 규모는 소폭 감소하여 흑자로 전환
-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는 지난달 300만 달러 흑자에서, 4억 2,600만 달러 적자로 전환하였으며, 서비스수지 계정항목 중 가장 큰 변동폭을 기록
  - 지식재산권사용료 지급이 약 4억 달러 감소하였으나, 프랜차이즈 및 상표권사용료,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사용료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입도 약 8억 달러 감소하여 적자로 전환
- 가공서비스, 유지보수는 지난달에 비해 적자 규모가 증가하였고,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개인·문화·여가서비스는 흑자 규모가 감소
  - 특히, 가공서비스와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수지가 1억 달러 이상의 변동폭을 기록

# IV

## 지역별 동향

### 01 개관

#### (1) 생산

- 3월 전국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7.6% 감소
  - 강원(5.9%), 인천(5.9%), 광주(3.9%) 등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경기(-20.7%), 서울(-19.2%), 충북(-15.8%)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 지역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4*	1월	2월*	3월*
전국		-0.3	8.2	1.4	5.6	1.4	-6.4	-9.7	-13.4	-8.0	-7.6
수도권	서울	-13.4	9.1	-2.0	-1.4	-4.7	-10.5	-15.3	-12.1	-14.2	-19.2
	인천	-1.0	13.2	1.0	-0.4	11.3	4.8	4.1	-0.6	6.8	5.9
	경기	9.3	14.3	4.1	12.3	2.5	-10.5	-23.4	-23.9	-26.1	-20.7
충청권	대전	-6.8	4.2	-1.4	-5.1	-1.4	-1.4	-0.9	-2.6	4.2	-3.8
	세종	8.0	10.4	3.3	3.9	0.9	3.4	-5.6	-7.9	-1.9	-6.8
	충북	-6.5	14.4	-0.8	12.5	-3.6	-13.9	-11.4	-15.3	-1.4	-15.8
	충남	-2.3	12.0	-0.2	0.5	-2.2	-1.7	-5.8	-10.6	-2.1	-4.4

(계속)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4*	1월	2월*	3월*
호남권	광주	0.1	7.3	3.2	3.2	10.8	-2.6	2.6	-5.0	9.4	3.9
	전북	-5.5	7.8	2.9	1.5	6.8	0.3	-4.3	-9.2	-1.9	-1.7
	전남	-0.8	8.0	-2.9	-0.4	-3.9	-11.2	-4.1	-9.4	-1.5	-0.6
대경권	대구	-11.0	11.5	5.0	2.8	8.0	5.9	4.7	0.8	10.8	3.2
	경북	-5.7	4.8	-1.4	0.3	3.5	-6.0	-0.1	-2.6	6.4	-3.3
동남권	부산	-6.1	2.4	9.7	8.3	15.9	7.7	-0.5	-3.1	4.6	-2.4
	울산	-6.8	6.6	-1.0	0.9	-3.0	-3.8	-1.7	-13.1	5.7	3.7
	경남	-7.2	3.9	5.7	4.7	6.3	5.4	2.7	-2.6	8.1	3.2
강원권		-5.3	1.7	5.7	7.6	6.8	4.9	8.6	1.0	20.4	5.9
제주권		-6.1	5.4	6.7	3.5	5.7	4.9	-1.3	-6.9	9.4	-4.7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는 잠정치이며, 2020=100.

## (2) 고용

- 3월 전국 취업자 수는 2,822만 명으로 전년동월비 1.7% 증가
  - 제주(-1.0%)는 소폭 감소했으며, 세종(6.7%), 강원(4.6%), 전남(3.3%)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지역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4	1월	2월	3월
전국		26,904 (-0.8)	27,273 (1.4)	28,089 (3.0)	28,347 (3.2)	28,425 (2.8)	28,216 (2.2)	27,767 (1.5)	27,363 (1.5)	27,714 (1.1)	28,223 (1.7)
수도권	서울	5,051 (-0.7)	5,055 (0.1)	5,113 (1.1)	5,134 (1.0)	5,133 (1.1)	5,127 (0.5)	5,096 (0.7)	5,057 (0.6)	5,089 (0.3)	5,144 (1.3)
	인천	1,560 (-1.3)	1,563 (0.2)	1,614 (3.3)	1,614 (2.5)	1,639 (4.1)	1,641 (4.5)	1,613 (3.3)	1,597 (4.5)	1,619 (2.7)	1,622 (2.6)
	경기	6,909 (-0.6)	7,150 (3.5)	7,597 (6.3)	7,698 (7.6)	7,694 (6.1)	7,606 (3.6)	7,476 (1.1)	7,403 (1.6)	7,455 (0.6)	7,570 (1.2)

(계속)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4	1월	2월	3월
충청권	대전	780 (1.0)	785 (0.6)	794 (1.1)	789 (0.3)	797 (0.0)	805 (1.1)	794 (1.4)	789 (1.2)	799 (1.7)	795 (1.3)
	세종	180 (7.1)	185 (2.8)	197 (6.5)	199 (5.9)	201 (6.3)	202 (9.2)	203 (8.6)	200 (11.1)	201 (8.1)	207 (6.7)
	충북	890 (1.1)	897 (0.8)	926 (3.2)	940 (3.6)	938 (3.1)	930 (1.8)	908 (1.3)	875 (-0.5)	905 (1.5)	945 (2.9)
	충남	1,176 (-1.7)	1,193 (1.4)	1,226 (2.8)	1,241 (2.0)	1,267 (2.9)	1,245 (3.0)	1,178 (2.4)	1,151 (2.5)	1,162 (2.8)	1,223 (2.2)
호남권	광주	748 (-0.3)	745 (-0.4)	750 (0.7)	749 (-0.4)	754 (0.4)	757 (2.3)	759 (2.6)	753 (3.2)	759 (2.6)	766 (2.1)
	전북	932 (0.4)	953 (2.3)	968 (1.6)	986 (2.5)	991 (2.2)	961 (0.6)	954 (2.1)	929 (0.7)	963 (3.2)	969 (2.3)
	전남	974 (0.0)	985 (1.1)	1,010 (2.5)	1,024 (2.9)	1,021 (2.0)	1,016 (2.0)	1,003 (2.2)	980 (1.7)	1,003 (1.8)	1,027 (3.3)
대경권	대구	1,184 (-2.9)	1,217 (2.8)	1,228 (0.9)	1,233 (0.3)	1,239 (0.6)	1,226 (0.1)	1,220 (0.4)	1,196 (-0.7)	1,222 (0.7)	1,241 (1.2)
	경북	1,418 (-0.8)	1,410 (-0.6)	1,462 (3.7)	1,492 (5.3)	1,486 (3.3)	1,464 (2.5)	1,426 (1.5)	1,386 (1.2)	1,428 (2.1)	1,464 (1.2)
동남권	부산	1,640 (-2.1)	1,657 (1.0)	1,679 (1.3)	1,681 (0.7)	1,696 (0.8)	1,692 (2.0)	1,680 (2.1)	1,677 (3.3)	1,663 (0.2)	1,698 (2.6)
	울산	560 (-1.9)	555 (-0.9)	566 (2.0)	569 (3.1)	572 (2.5)	571 (2.0)	564 (2.4)	559 (2.0)	562 (2.7)	570 (2.3)
	경남	1,729 (-1.1)	1,732 (0.2)	1,740 (0.5)	1,766 (0.2)	1,744 (-0.9)	1,740 (0.9)	1,715 (0.2)	1,680 (0.4)	1,707 (-0.1)	1,758 (0.5)
강원권		795 (-2.0)	809 (1.8)	818 (1.1)	838 (0.7)	848 (0.8)	820 (0.0)	786 (2.7)	741 (2.3)	786 (1.7)	833 (4.6)
제주권		378 (-1.0)	383 (1.3)	402 (5.0)	397 (2.3)	404 (6.3)	413 (6.2)	392 (-0.3)	391 (0.5)	391 (-0.3)	393 (-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017년부터 충북, 충남에서 세종이 분리되어 작성됨.

## (3) 수출

- 3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3.6% 감소한 551억 달러를 기록
  - 전월에 이어 수출 감소가 나타났으며, 대구(31.8%), 광주(5.7%) 두 지역만 전년동월비 증가를 기록했고, 세종(-36.2%), 충남(-31.7%), 제주(-27.3%) 등은 상대적으로 큰 감소를 기록

## 지역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4	1월	2월	3월
전국		-5.5	25.7	6.1	13.0	5.8	-10.0	-12.6	-16.4	-7.6	-13.6
수도권	서울	-7.1	28.5	-2.4	0.5	-3.3	-12.9	-6.7	-20.5	1.9	-1.2
	인천	-0.8	25.7	14.5	21.7	23.4	-9.3	-5.4	-7.4	-1.7	-6.5
	경기	-1.3	19.7	-0.3	6.0	-2.0	-16.4	-18.0	-24.2	-12.2	-17.3
충청권	대전	24.0	-1.3	-5.4	10.2	-8.9	-18.3	-13.1	-25.1	3.0	-15.2
	세종	1.2	17.8	5.8	21.3	5.7	-15.4	-34.5	-27.9	-39.5	-36.2
	충북	12.6	15.7	12.7	25.1	15.2	-1.0	-8.0	-5.1	-4.9	-12.8
	충남	-0.5	30.9	3.2	14.4	-3.8	-20.6	-35.3	-39.5	-35.4	-31.7
호남권	광주	2.7	20.6	8.1	12.1	19.0	-1.6	6.0	1.9	11.0	5.7
	전북	-10.6	33.9	5.1	7.2	2.4	-11.2	-14.4	-23.8	-5.6	-13.1
	전남	-16.9	59.8	14.2	31.5	13.6	-13.3	-17.0	-12.1	-20.2	-17.9
대경권	대구	-16.4	26.6	34.1	36.1	46.5	28.1	27.6	5.3	48.5	31.8
	경북	-1.6	19.5	5.8	13.9	-1.1	-8.7	-5.0	1.0	8.4	-19.6
동남권	부산	-18.7	30.9	9.3	12.1	7.8	-6.9	-6.6	-11.0	-10.5	1.1
	울산	-19.3	32.4	21.3	24.2	25.8	8.9	1.0	-4.1	11.5	-4.0
	경남	-8.8	9.4	-7.2	-6.7	-1.4	-5.6	-1.8	3.1	-0.4	-7.0
강원권		-3.1	34.9	0.8	12.7	-11.7	-12.4	-15.9	-21.2	-7.8	-18.6
제주권		4.0	47.1	-13.6	-16.7	-31.0	-18.5	-24.1	-18.8	-25.0	-27.3

자료: 한국무역협회.

## 02 지역별 동향

### (1) 수도권

#### □ 서울

- 생산 감소(-19.2%), 고용 증가(1.3%), 수출 감소(-1.2%)
  - 주요 업종인 식료품(16.5%)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4.3%), 의복 및 모피제품(-5.5%) 등의 생산이 감소하며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0.2%) 고용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4%)의 고용은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주요 수출품인 비누치약 및 화장품(19.7%), 자동차부품(1.0%)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20.8%), 반도체(-4.4%)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 인천

- 생산 증가(5.9%), 고용 증가(2.6%), 수출 감소(-6.5%)
  - 주요 업종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21.4%)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25.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0.8%) 등의 생산 증가로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4.3%)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4%)의 고용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65.8%)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41.8%), 농약 및 의약품(-21.7%)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 □ 경기

- 생산 감소(-20.7%), 고용 증가(1.2%), 수출 감소(-17.3%)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1.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 수도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4	1월	2월	3월
생 산	서울	의복 및 모피제품	-20.7	3.6	-0.1	5.2	3.9	-9.8	-8.0	-12.8	-4.8	-5.5
		전자부품 외	-16.5	9.0	-3.9	-2.5	-2.0	1.8	-11.3	-5.6	-13.5	-14.3
		식료품	-8.0	-2.3	4.5	1.3	4.9	5.2	17.6	11.8	27.1	16.5
	인천	기계 및 장비	-1.3	62.9	-12.3	-19.1	50.3	16.8	15.6	6.6	14.0	25.4
		전자부품 외	40.9	5.4	14.5	19.6	13.8	10.8	20.1	29.3	11.0	20.8
		의약품 외	2.9	26.2	14.9	15.7	24.0	-2.6	-14.7	-11.8	-10.1	-21.4
	경기	전자부품 외	21.1	23.3	7.8	26.8	2.6	-19.8	-37.8	-35.2	-47.1	-31.8
		기계 및 장비	12.6	14.2	3.7	-4.8	10.0	13.7	-11.8	-28.0	8.1	-13.5
		고무 및 플라스틱	-3.9	0.6	-3.6	-0.4	-4.1	-6.2	-9.8	-17.3	-5.3	-6.5
고 용	서울	농림·어업	7 (-12.5)	5 (-28.6)	6 (20.0)	7 (0.0)	7 (133.3)	6 (50.0)	5 (25.0)	5 (25.0)	5 (25.0)	5 (25.0)
		제조업	447 (-0.4)	442 (-1.1)	450 (1.8)	449 (2.3)	457 (4.3)	440 (-0.5)	454 (0.0)	450 (-0.9)	457 (1.6)	456 (-0.2)
		SOC·서비스	4,597 (-0.7)	4,609 (0.3)	4,658 (1.1)	4,678 (0.9)	4,670 (0.7)	4,681 (0.5)	4,637 (0.7)	4,603 (0.7)	4,627 (0.1)	4,683 (1.4)
	인천	농림·어업	14 (-6.7)	9 (-35.7)	2 (-77.8)	2 (-83.3)	2 (-81.8)	2 (-50.0)	2 (100.0)	2 (100.0)	2 (100.0)	2 (100.0)
		제조업	324 (-1.2)	312 (-3.7)	322 (3.2)	323 (6.6)	322 (2.5)	321 (0.3)	308 (-4.9)	309 (-3.4)	305 (-6.7)	311 (-4.3)
		SOC·서비스	1,221 (-1.4)	1,241 (1.6)	1,289 (3.9)	1,288 (2.2)	1,314 (5.2)	1,318 (5.8)	1,302 (5.4)	1,286 (6.6)	1,312 (5.2)	1,309 (4.4)
	경기	농림·어업	107 (-9.3)	107 (0.0)	131 (22.4)	146 (19.7)	162 (30.6)	127 (11.4)	92 (4.5)	71 (-14.5)	73 (-8.8)	132 (30.7)
		제조업	1,283 (1.9)	1,344 (4.8)	1,468 (9.2)	1,477 (9.0)	1,489 (13.2)	1,483 (10.5)	1,445 (1.5)	1,439 (2.6)	1,442 (2.1)	1,455 (0.0)
		SOC·서비스	5,519 (-1.0)	5,699 (3.3)	5,999 (5.3)	6,075 (7.0)	6,043 (3.9)	5,995 (1.9)	5,939 (1.0)	5,893 (1.6)	5,940 (0.4)	5,983 (0.9)
수 출	서울	53,332 (-7.1)	68,538 (28.5)	66,904 (-2.4)	17,734 (0.5)	16,437 (-3.3)	15,370 (-12.9)	16,194 (-6.7)	4,675 (-20.5)	5,514 (1.9)	6,005 (-1.2)	
	인천	37,701 (-0.8)	47,395 (25.7)	54,309 (14.6)	13,049 (21.7)	14,726 (23.4)	13,327 (-9.3)	12,459 (-5.4)	3,972 (-7.4)	3,885 (-1.7)	4,602 (-6.5)	
	경기	115,157 (-1.3)	137,832 (19.7)	137,460 (-0.3)	36,256 (6.0)	34,593 (-2.0)	31,111 (-16.4)	29,086 (-18.0)	8,612 (-24.2)	9,563 (-12.2)	10,911 (-17.3)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업(-13.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6.5%) 등의 생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농림·어업(30.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9%)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지역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81.8%)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43.7%), 반도체제조용 장비(-1.9%)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 (2) 충청권

### □ 대전

● 생산 감소(-3.8%), 고용 증가(1.3%), 수출 감소(-15.2%)

-주요 업종인 담배 제조업(21.6%)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41.4%), 기타 기계 및 장비(-16.6%)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제조업(0.0%)이 소폭 증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6%)도 고용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증가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부품(38.2%)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44.6%), 원동기 및 펌프(-4.0%) 등의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 세종

● 생산 감소(-6.8%), 고용 증가(6.7%), 수출 감소(-36.2%)

-주요 업종인 식료품 제조업(10.8%)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46.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2%)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제조업(3.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8.2%)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상위 수출품인 농약 및 의약품(1.4%)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구부품(-61.3%), 정밀화학원료(-5.6%)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 충청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4	1월	2월	3월
생 산	대전	담배 제조업	11.6	-2.6	-1.8	-8.6	11.4	2.1	18.8	8.1	28.3	21.6
		화학제품 외	-4.7	-10.0	-21.2	-24.0	-39.6	-27.7	-41.9	-49.3	-34.5	-41.4
		기계 및 장비	-23.6	1.2	8.1	-9.9	21.2	12.6	0.1	18.1	15.7	-16.6
	세종	전자부품 외	26.7	30.8	7.6	17.7	9.0	-20.4	-47.3	-42.5	-53.3	-46.4
		화학제품 외	6.7	3.8	3.4	0.4	-18.1	24.1	-16.8	-25.9	-12.1	-12.2
		식료품	12.7	2.5	-1.5	-7.7	11.7	6.2	9.3	3.0	15.2	10.8
	충북	전자부품 외	-14.3	32.4	-5.1	30.8	-14.5	-44.5	-35.2	-40.4	-24.2	-38.8
		화학제품 외	-9.3	19.3	-38.1	-20.3	-52.3	-29.3	-27.9	-29.2	-9.1	-38.1
		식료품	6.9	4.5	2.7	6.5	4.1	-4.5	-9.3	-12.9	-2.0	-11.7
	충남	전자부품 외	-9.5	27.2	-7.9	-4.4	-18.0	-12.6	-25.5	-27.1	-25.2	-24.3
		자동차 및 트레일러	0.1	4.8	7.9	3.6	26.2	13.6	27.9	41.9	25.3	20.0
		화학제품 외	1.1	9.3	-4.0	1.9	-9.5	-11.1	-10.4	-12.5	-8.9	-9.5
공 예	대전	농림·어업	8 (0.0)	8 (0.0)	9 (12.5)	9 (12.5)	9 (12.5)	8 (-20.0)	7 (-22.2)	6 (-25.0)	7 (-22.2)	8 (-11.1)
		제조업	105 (2.9)	91 (-13.3)	78 (-14.3)	78 (-16.1)	76 (-16.5)	78 (-9.3)	77 (-3.8)	75 (-9.6)	77 (-2.5)	79 (0.0)
		SOC·서비스	667 (0.9)	684 (2.5)	707 (3.4)	702 (2.5)	712 (2.2)	720 (3.0)	711 (2.4)	708 (2.9)	715 (2.6)	708 (1.6)
	세종	농림·어업	8 (0.0)	9 (12.5)	8 (-11.1)	10 (-9.1)	8 (-27.3)	7 (-12.5)	6 (0.0)	4 (-20.0)	5 (0.0)	8 (14.3)
		제조업	24 (0.0)	24 (0.0)	28 (16.7)	28 (21.7)	29 (20.8)	30 (20.0)	29 (11.5)	29 (16.0)	29 (11.5)	28 (3.7)
		SOC·서비스	148 (8.8)	153 (3.4)	161 (5.2)	162 (4.5)	164 (6.5)	164 (7.9)	169 (9.0)	167 (11.3)	167 (7.7)	172 (8.2)
	충북	농림·어업	93 (4.5)	96 (3.2)	101 (5.2)	106 (5.0)	109 (4.8)	97 (-4.0)	89 (-4.3)	78 (-16.1)	87 (-5.4)	104 (8.3)
		제조업	201 (5.8)	212 (5.5)	198 (-6.6)	198 (-7.0)	194 (-6.3)	189 (-10.4)	189 (-10.4)	189 (-11.7)	186 (-11.0)	193 (-8.5)
		SOC·서비스	596 (-0.8)	588 (-1.3)	626 (6.5)	634 (7.1)	635 (6.0)	644 (7.2)	629 (6.6)	608 (6.5)	632 (7.3)	647 (6.1)
	충남	농림·어업	162 (13.3)	177 (9.3)	179 (1.1)	211 (7.1)	205 (-0.5)	161 (-9.6)	118 (-15.1)	100 (-14.5)	105 (-18.6)	148 (-12.9)
		제조업	250 (-7.4)	257 (2.8)	252 (-1.9)	242 (-6.6)	254 (1.6)	258 (-1.5)	266 (5.6)	263 (1.5)	264 (7.3)	270 (8.4)
		SOC·서비스	764 (-2.4)	760 (-0.5)	795 (4.6)	788 (3.7)	808 (4.3)	825 (7.3)	795 (4.6)	788 (5.5)	793 (5.0)	804 (3.5)
수 출	대전	5,018 (24.0)	4,953 (-1.3)	4,686 (-5.4)	1,295 (10.2)	1,131 (-8.9)	1,028 (-18.3)	1,070 (-13.1)	314 (-25.1)	383 (3.0)	373 (-15.2)	
	세종	1,300 (1.2)	1,532 (17.8)	1,621 (5.8)	438 (21.3)	410 (5.7)	356 (-15.4)	273 (-34.5)	98 (-27.9)	78 (-39.5)	97 (-36.2)	
	충북	5,018 (24.0)	28,766 (15.7)	32,428 (12.7)	8,402 (25.1)	8,731 (15.2)	7,177 (-1.0)	7,455 (-8.0)	2,396 (-5.1)	2,377 (-4.9)	2,682 (-12.8)	
	충남	1,300 (1.2)	104,122 (30.9)	107,489 (3.2)	28,333 (14.4)	27,118 (-3.8)	23,107 (-20.6)	18,717 (-35.3)	5,554 (-39.5)	5,740 (-35.4)	7,423 (-31.7)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 충북

- 생산 감소(-15.8%), 고용 증가(2.9%), 수출 감소(-12.8%)
  - 지역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8.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38.1%), 식료품 제조업(-11.7%) 생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8.5%)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6.1%) 고용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 품목인 정밀화학원료(127.9%), 건전지 및 축전지(2.0%)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10.7%)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 충남

- 생산 감소(-4.4%), 고용 증가(2.2%), 수출 감소(-31.7%)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20.0%)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4.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9.5%) 등의 생산 감소로 전체 생산 감소
  - 농림·어업(-12.9%)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8.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5%)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주력수출품 중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42.6%), 석유제품(-30.7%), 반도체(-29.1%) 모두 수출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 (3) 호남권

## □ 광주

- 생산 증가(3.9%), 고용 증가(2.1%), 수출 증가(5.7%)
  - 주요 업종인 전기장비(-18.7%), 기타 기계 및 장비(-4.8%)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42.4%) 등의 생산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은 증가
  - 제조업(-2.9%)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38.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 호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4	1월	2월	3월
생 산	광 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0.9	1.4	9.7	5.5	21.7	11.8	23.9	-6.1	42.7	42.4
		전기장비	8.7	15.7	-7.6	-0.2	-23.0	-22.2	-23.5	-31.8	-20.5	-18.7
		기계 및 장비	-11.2	10.6	1.0	-3.2	12.1	-5.4	3.7	1.2	17.7	-4.8
	전 북	식료품	-0.6	-1.2	2.9	4.8	6.2	-3.0	-7.6	-8.9	-6.2	-7.4
		화학제품 외	-11.1	-1.5	-4.3	-6.8	-1.7	-4.5	-2.8	-3.9	1.9	-5.6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0	17.2	14.2	8.8	27.6	16.1	1.0	-16.9	1.3	16.0
	전 남	화학제품 외	-2.9	11.5	-6.5	-1.6	-8.9	-21.5	-8.7	-14.4	-5.2	-5.6
		1차 금속 제조업	-8.2	7.6	-2.9	-5.2	-1.9	-2.2	-0.2	-7.9	0.7	7.2
		석유정제품	-3.8	11.1	3.8	1.8	2.5	3.3	1.8	5.6	0.6	-0.9
고 용	광 주	농림·어업	16 (23.1)	12 (-25.0)	15 (25.0)	16 (23.1)	16 (33.3)	15 (15.4)	18 (38.5)	17 (30.8)	18 (38.5)	18 (38.5)
		제조업	107 (-2.7)	100 (-6.5)	104 (4.0)	107 (7.0)	105 (9.4)	102 (1.0)	100 (-2.9)	99 (-4.8)	99 (-2.0)	102 (-2.9)
		SOC·서비스	625 (-0.2)	632 (1.1)	631 (-0.2)	626 (-2.0)	634 (-1.6)	639 (1.9)	641 (2.7)	637 (3.9)	642 (2.6)	645 (2.1)
	전 북	농림·어업	179 (6.5)	169 (-5.6)	172 (1.8)	179 (0.0)	186 (8.1)	170 (3.7)	151 (0.0)	146 (-2.0)	150 (0.7)	157 (1.3)
		제조업	123 (0.0)	120 (-2.4)	119 (-0.8)	113 (-4.2)	117 (0.9)	124 (0.8)	123 (1.7)	123 (-0.8)	124 (3.3)	122 (2.5)
		SOC·서비스	630 (-0.8)	663 (5.2)	677 (2.1)	693 (4.4)	688 (1.0)	667 (-0.1)	679 (2.6)	660 (1.7)	688 (3.6)	689 (2.5)
	전 남	농림·어업	205 (7.3)	221 (7.8)	234 (5.9)	235 (6.3)	241 (5.2)	238 (3.5)	218 (-1.8)	224 (3.2)	212 (-3.6)	219 (-4.4)
		제조업	106 (1.9)	97 (-8.5)	99 (2.1)	100 (3.1)	99 (1.0)	95 (-3.1)	102 (2.0)	101 (-1.0)	105 (7.1)	100 (0.0)
		SOC·서비스	662 (-2.4)	667 (0.8)	678 (1.6)	688 (1.6)	680 (0.9)	683 (2.2)	684 (3.8)	656 (1.7)	686 (2.8)	709 (6.5)
수 출	광주		13,772 (2.7)	16,604 (20.6)	17,946 (8.1)	4,700 (12.1)	4,703 (19.0)	4,359 (-1.6)	4,434 (6.0)	1,430 (1.9)	1,372 (11.0)	1,632 (5.7)
	전북		5,842 (-10.6)	7,820 (33.9)	8,223 (5.2)	2,145 (7.2)	2,013 (2.4)	1,862 (-11.2)	1,882 (-14.4)	569 (-23.8)	642 (-5.6)	671 (-13.1)
	전남		27,092 (-16.9)	43,294 (59.8)	49,438 (14.2)	13,386 (31.5)	13,161 (13.6)	10,879 (-13.3)	9,971 (-17.0)	3,196 (-12.1)	3,354 (-20.2)	3,421 (-17.9)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2.1%)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25.3%), 냉장고(-8.0%)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00.6%)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 전북

- 생산 감소(-1.7%), 고용 증가(2.3%), 수출 감소(-13.1%)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6.0%)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제조업(-7.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5.6%)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농림·어업(1.3), 제조업(2.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5%) 전 부문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건설광산기계(38.9%), 자동차(41.0%)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제품(-25.7%), 정밀화학원료(-37.6%) 등의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 전남

- 생산 소폭 감소(-0.6%), 고용 증가(3.3%), 수출 감소(-17.9%)
  - 주요 업종인 1차 금속 제조업(7.2%)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5.6%), 석유정제품(-0.9%) 등의 생산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소폭 감소
  - 농림·어업(-4.4%)의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0.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6.5%)의 고용이 소폭 증가 및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88.7%)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32.9%), 합성수지(-22.6%)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4) 대경권

#### □ 대구

- 생산 증가(3.2%), 고용 증가(1.2%), 수출 증가(31.8%)

## 대경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4	1월	2월	3월
생 산	대구	금속가공제품	-13.4	7.2	-3.2	-4.3	-3.8	0.1	2.8	4.0	2.3	2.2
		기계 및 장비	-16.9	31.1	11.0	9.6	9.8	14.7	11.0	11.5	19.8	3.5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7	11.7	9.0	7.0	15.0	15.3	11.9	1.4	22.5	12.9
	경북	전자부품 외	-11.4	7.3	-7.4	-9.0	-2.5	-9.1	-0.8	8.8	14.4	-21.1
		1차 금속	-2.8	1.8	-16.7	-4.4	-21.0	-39.1	-13.2	-21.5	-9.2	-8.5
		자동차 및 트레일러	-6.8	10.1	16.9	14.3	22.4	27.4	23.8	11.4	28.1	31.8
고 용	대구	농림·어업	31 (-6.1)	15 (-51.6)	10 (-33.3)	12 (-25.0)	11 (0.0)	10 (-9.1)	8 (0.0)	6 (-25.0)	7 (0.0)	11 (22.2)
		제조업	231 (-7.2)	239 (3.5)	240 (0.4)	239 (-2.8)	244 (1.2)	240 (2.6)	240 (1.3)	238 (-0.4)	242 (1.7)	239 (1.3)
		SOC·서비스	923 (-1.4)	963 (4.3)	978 (1.6)	982 (1.6)	984 (0.5)	976 (-0.4)	972 (0.2)	952 (-0.7)	973 (0.4)	991 (0.9)
	경북	농림·어업	262 (4.4)	274 (4.6)	280 (2.2)	286 (0.4)	292 (-0.3)	293 (8.1)	261 (4.8)	244 (2.5)	259 (5.3)	279 (6.5)
		제조업	292 (-2.3)	283 (-3.1)	293 (3.5)	298 (7.6)	296 (5.3)	280 (-5.1)	268 (-10.4)	270 (-9.4)	267 (-11.3)	268 (-10.4)
		SOC·서비스	863 (-1.8)	853 (-1.2)	888 (4.1)	908 (6.3)	897 (3.8)	891 (3.4)	897 (4.8)	873 (4.8)	903 (6.1)	917 (3.6)
수 출	대구	6,265 (-16.4)	7,934 (26.6)	10,642 (34.1)	2,653 (36.1)	2,799 (46.5)	2,840 (28.1)	2,997 (27.6)	840 (5.3)	1,008 (48.5)	1,149 (31.8)	
	경북	37,096 (-1.6)	44,314 (19.5)	46,888 (5.8)	11,743 (13.9)	10,985 (-1.1)	11,497 (-8.7)	12,019 (-5.0)	4,045 (1.0)	3,957 (8.4)	4,017 (-19.6)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2.9%), 기타 기계 및 장비(3.5%), 금속가공제품(2.2%)의 생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1.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9%)의 고용이 증가 및 소폭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부품(-3.1%)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밀화학원료(113.4%), 농기계(85.8%)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 경북

- 생산 감소(-3.3%), 고용 증가(1.2%), 수출 감소(-19.6%)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31.8%)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1.1%), 1차 금속 제조업(-8.5%) 등의 생산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10.4%)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6%) 고용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수출 상위 품목인 정밀화학원료(101.7%)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기기(-57.8%), 철강판(-7.4%)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 (5) 동남권

## □ 부산

- 생산 감소(-2.4%), 고용 증가(2.6%), 수출 증가(1.1%)
  - 주요 업종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17.8%), 기타 기계 및 장비(17.1%)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제조업(-12.5%) 등의 생산 감소로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3.5%)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15.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4%)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철강판(-33.2%)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62.8%), 원동기 및 펌프(18.6) 등의 수출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

## □ 울산

- 생산 증가(3.7%), 고용 증가(2.3%), 수출 감소(-4.0%)

## 동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4	1월	2월	3월
생 산	부 산	기계 및 장비	-3.5	-2.5	4.5	7.0	4.8	3.3	11.6	-3.8	22.3	17.1
		금속 가공제품	-4.9	-11.5	2.0	-1.5	8.6	12.5	15.9	3.5	27.4	17.8
		식료품	-2.0	3.6	-0.8	0.5	-3.1	-8.2	-11.4	-15.1	-5.8	-12.5
	울 산	자동차 및 트레일러	-9.4	2.7	2.2	2.2	6.5	10.1	17.9	-0.5	25.5	29.8
		화학제품 외	-2.8	6.9	-10.5	-6.7	-17.4	-16.2	-13.2	-15.7	-11.3	-12.5
		석유정제품	-9.2	-1.5	9.4	8.7	12.3	0.2	-5.5	-7.4	-4.7	-4.2
	경 남	기계 및 장비	-9.7	9.9	4.1	-1.6	5.1	8.4	0.2	-8.9	8.3	2.1
		기타 운송장비	-12.4	-12.7	18.6	21.0	19.3	13.3	7.6	2.3	15.0	5.6
		금속가공제품	-2.9	-5.7	8.7	5.0	15.8	18.6	20.0	8.8	22.2	28.4
고 용	부 산	농림·어업	7 (0.0)	11 (57.1)	19 (72.7)	20 (100.0)	18 (50.0)	19 (35.7)	21 (16.7)	20 (17.6)	20 (11.1)	22 (15.8)
		제조업	255 (-10.2)	240 (-5.9)	225 (-6.3)	229 (-6.1)	222 (-6.3)	222 (-1.8)	221 (-2.2)	226 (1.8)	219 (-4.8)	219 (-3.5)
		SOC·서비스	1,378 (-0.5)	1,407 (2.1)	1,435 (2.0)	1,432 (1.1)	1,456 (1.6)	1,451 (2.2)	1,437 (2.5)	1,431 (3.3)	1,424 (0.9)	1,457 (3.4)
	울 산	농림·어업	7 (16.7)	6 (-14.3)	6 (0.0)	6 (0.0)	7 (0.0)	7 (40.0)	6 (20.0)	6 (20.0)	5 (0.0)	7 (75.0)
		제조업	162 (-8.0)	163 (0.6)	168 (3.1)	163 (0.6)	172 (5.5)	181 (11.7)	178 (13.4)	178 (11.9)	178 (13.4)	177 (14.2)
		SOC·서비스	392 (0.8)	385 (-1.8)	392 (1.8)	401 (4.4)	394 (1.3)	384 (-2.0)	381 (-2.3)	376 (-2.1)	380 (-1.6)	387 (-3.0)
	경 남	농림·어업	184 (3.4)	203 (10.3)	220 (8.4)	234 (13.0)	238 (5.8)	214 (2.4)	195 (-0.5)	184 (-0.5)	194 (-0.5)	207 (0.0)
		제조업	399 (0.8)	377 (-5.5)	390 (3.4)	394 (3.7)	381 (3.0)	395 (4.8)	375 (-4.1)	380 (-2.6)	366 (-4.2)	378 (-5.3)
		SOC·서비스	1,145 (-2.4)	1,151 (0.5)	1,130 (-1.8)	1,138 (-3.1)	1,126 (-3.3)	1,131 (-0.6)	1,144 (1.7)	1,115 (1.5)	1,147 (1.4)	1,171 (2.4)
수 출	부산		11,320 (-18.7)	14,816 (30.9)	16,192 (9.3)	4,215 (12.1)	4,117 (7.8)	3,858 (-6.9)	3,739 (-6.6)	1,154 (-11.0)	1,171 (-10.5)	1,414 (1.1)
	울산		56,091 (-19.3)	74,268 (32.4)	90,154 (21.4)	23,353 (24.2)	23,194 (25.8)	22,258 (8.9)	21,502 (1.0)	6,449 (-4.1)	7,733 (11.5)	7,320 (-4.0)
	경남		35,893 (-8.8)	39,262 (9.4)	36,429 (-7.2)	8,623 (-6.7)	9,233 (-1.4)	9,336 (-5.6)	9,077 (-1.8)	2,880 (3.1)	3,039 (-0.4)	3,158 (-7.0)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대표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5%), 석유정제품(-4.2%)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29.8%) 등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0%)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14.2%)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40.8%)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4.8%), 합성수지(-33.3%)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 경남

- 생산 증가(3.2%), 고용 소폭 증가(0.5%), 수출 감소(-7.0%)
  - 주요 업종인 금속가공제품(28.4%), 기타 운송장비(5.6%), 기타 기계 및 장비(2.1%)의 생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4%) 고용이 증가하였으나, 제조업(-5.3%)이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침.
  -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448.0%)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50.6%), 자동차부품(-14.7%)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 (6) 강원·제주권

## □ 강원

- 생산 증가(5.9%), 고용 증가(4.6%), 수출 감소(-18.6%)
  - 대표 업종인 식료품 제조업(-6.5%)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음료 제조업(2.7%), 비금속 광물제품(2.0%) 등의 생산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9.3%)의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6.5%), 농림·어업(1.7%)의 고용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전자응용기기(10.2%), 자동차부품(1.1%)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산 가공품(-16.7%), 비누치약 및 화장품(-9.2%)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 강원·제주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4	1월	2월	3월
생 산	강 원	비금속 광물제품	-4.6	-1.4	-1.6	-2.6	-1.9	-3.1	-5.3	-15.0	-2.4	2.0
		식료품	-2.1	1.2	0.8	8.7	-1.6	-7.7	-8.9	-16.3	-2.7	-6.5
		음료	-4.2	5.0	29.6	33.8	34.3	17.2	11.4	15.9	17.4	2.7
	제 주	음료	-0.7	4.4	0.8	0.4	-5.6	1.0	4.6	-23.7	46.6	6.6
		식료품	-2.5	2.4	8.1	8.7	8.1	2.0	-4.9	-0.5	3.2	-15.2
		비금속 광물제품	-28.8	4.0	1.4	-8.4	12.2	-8.6	3.8	-2.7	7.0	6.9
고 용	강 원	농림·어업	82 (-10.9)	69 (-15.9)	72 (4.3)	88 (17.3)	88 (7.3)	64 (-11.1)	42 (-12.5)	32 (-20.0)	33 (-23.3)	61 (1.7)
		제조업	57 (1.8)	55 (-3.5)	54 (-1.8)	54 (0.0)	52 (-5.5)	53 (-5.4)	49 (-10.9)	49 (-12.5)	48 (-14.3)	49 (-9.3)
		SOC·서비스	649 (-1.4)	678 (4.5)	686 (1.2)	689 (-1.1)	703 (0.9)	699 (2.0)	692 (6.0)	656 (5.8)	701 (5.3)	718 (6.5)
	제 주	농림·어업	74 (10.4)	67 (-9.5)	63 (-6.0)	64 (-5.9)	62 (0.0)	65 (-1.5)	54 (-12.9)	57 (-9.5)	53 (-11.7)	52 (-17.5)
		제조업	12 (0.0)	14 (16.7)	16 (14.3)	16 (14.3)	16 (6.7)	16 (-5.9)	16 (0.0)	16 (0.0)	15 (-11.8)	15 (-11.8)
		SOC·서비스	292 (-3.6)	302 (3.4)	323 (7.0)	317 (3.6)	326 (7.9)	333 (8.8)	322 (2.5)	319 (2.9)	323 (2.5)	326 (2.5)
수 출	강원		2,023 (-3.1)	2,729 (34.9)	2,750 (0.8)	743 (12.7)	634 (-11.7)	630 (-12.4)	625 (-15.9)	186 (-21.2)	225 (-7.8)	214 (-18.6)
	제주		155 (4.0)	228 (47.1)	197 (-13.6)	50 (-16.7)	40 (-31.0)	53 (-18.5)	41 (-24.1)	13 (-18.8)	12 (-25.0)	16 (-27.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 제주

- 생산 감소(-4.7%), 고용 감소(-1.0%), 수출 감소(-27.3%)
  - 주요 업종인 비금속 광물제품(6.9%), 음료 제조업(6.6%)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제조업(-15.2%)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5%)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17.5%), 제조업(-11.8%)의 고용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감소
  - 지역 수출품 중 어류(1.5%), 연체동물(71.8%)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45.2%)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01 미국과의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이 국내 방산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sup>3)</sup>

### (1) 방위산업의 수출 호황기, 지속성 확보가 관건

- 2022년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은 17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 글로벌 방산수출 강국으로 부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동유럽의 무기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폴란드 등으로부터 대규모 사업을 수주
- 현재와 같은 방산수출 호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대 방위산업 수요처인 미국은 물론, 미국의 우방국들과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이들 국가의 방산시장 진출을 도모할 필요

### (2) 미국은 동맹국과의 방산협력 수단으로 RDP 협정을 활용 중

- 최근 한·미 상호 간 안보협력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MOU, 이하 RDP-MOU)은 대미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첫 단추가

3) 본고는 산업연구원(2023), 「국방상호조달협정(RDP-MOU)이 방산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의 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될 것으로 예상

- 한·미 관계가 포괄적 경제·안보 동맹으로 진전됨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
-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RDP-MOU의 체결 논의 중
- 지난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도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sup>4)</sup>할 것임을 강조
- RDP-MOU는 미국이 우방국과 무기체계의 표준화, 합리화, 상호운용성, 후속군수지원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안보협력 방식 중 하나
  - 최근 들어서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동맹국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
- RDP-MOU는 체결국 간의 방산시장을 개방한다는 점에서 방위산업의 FTA라는 개념으로 통용
  - WTO의 정부조달협정에서도 무기, 탄약 및 전쟁물자는 정부조달협정 적용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국방조달 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별도의 협정 필요

#### RDP-MOU 체결 시의 혜택

	주요 내용
미국산우선구매법 (Buy American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정부기관이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법령</li> <li>* 원자재의 경우 미국에서 채굴 또는 생산, 제조품의 경우 미국 내에서 제조 또는 미국 구성품의 원가가 전체 구성품 원가의 60%를 초과</li> <li>- 외국 제품에 대한 가격 페널티: 대기업 20%, 소기업 30%</li> <li>- 국방부조달: 50% 페널티 부과</li> </ul> <p><b>협정 체결 시 미국산 우선구매법 적용 면제</b></p>
베리수정법 (Berry Amend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국방부가 조달하는 식료품·군복·섬유·특수 금속·수공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재배되지 않은 것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li> </ul> <p><b>협정 체결 시 파라 아라미드 섬유, 직조물, 화학전에 대비한 보호 의복류, 특수 금속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을 면제</b></p>

자료: FAR 25.0003 Definitions를 기초로 산업연구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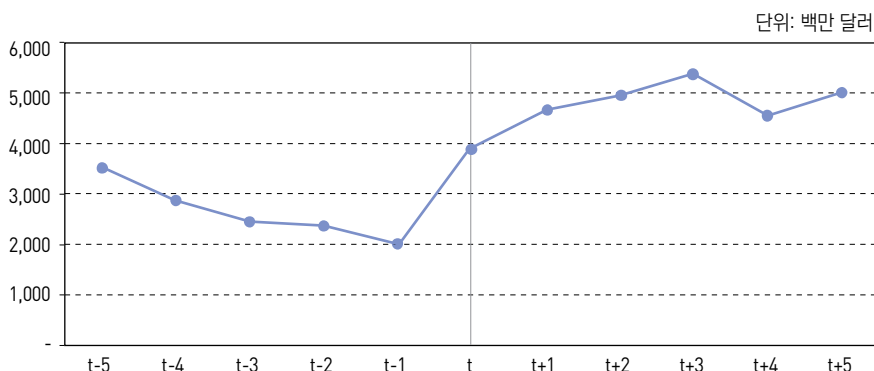
4) 대통령실(2023),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4월 27일.

- 미국과 RDP-MOU를 체결할 경우 미국의 국방조달규정에 의거하여 적격국가(Qualifying Country)로 지정되어, 미국산우선구매법 적용이 면제되며 배리수정법도 일부 면제
  - 또한 미국 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기 때문에, 관세 및 일부 제세 면제 가능

### (3) RDP-MOU 체결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대미 방산수출이 증가

- RDP-MOU를 체결한 27개 국가들의 대미 방산수출 동향을 보면, 협정 체결 이후 대미 방산수출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
  - 1970년대 협정을 체결한 서유럽 국가들은 협정 체결 이후 대미 무역적자가 해소되는 현상
  - 2016년에 협정을 체결한 일본의 경우 협정체결을 계기로 미국과 무기체계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방산협력이 강화
- RDP-MOU의 효과를 이원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RDP-MOU는 평균적으로 대미 방산수출액을 약 49.5~80.0%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 이는 과거 미국과 RDP-MOU를 체결한 국가들이 미국 방산시장의 진입장벽 완화로 인해 대미 방산수출이 증가하였음을 시사하는 결과

RDP-MOU 협정 체결 전후 대미 수출액 변화



자료: UN Comtrade DB, <https://comtrade.un.org>(접속일: 2022. 11. 10).

RDP-MOU가 대미 방산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 결과(이원 고정효과 모형)

변수	(1)	(2)	(3)	(4)	(5)
<i>D</i>	0.631*** [3.89]	0.800*** [4.69]	0.585*** [3.43]	0.539** [3.17]	0.495** [2.88]
<i>ln(GDP)</i>		-0.374 [-1.30]	-0.616 [-1.90]	-0.443 [-1.30]	-0.504 [-1.47]
<i>ln(GDPpc)</i>		1.972*** [7.37]	2.158*** [7.16]	1.825*** [5.59]	1.886*** [5.74]
<i>ln(HC)</i>		1.914** [2.77]	1.804** [2.61]	1.518* [2.15]	1.501* [2.13]
<i>ln(XR)</i>		0.065*** [4.56]	0.066*** [4.64]	0.077*** [5.10]	0.077*** [5.07]
<i>ln(ME)</i>			-0.012 [-0.12]	0.004 [0.04]	0.008 [0.08]
<i>Actotal</i>				-0.0028 [-0.07]	
<i>Intwar</i>					-0.187 [-1.44]
<i>Civwar</i>					0.017 [0.39]
<i>_cons</i>	-4.409*** [-4.54]	-15.10*** [-8.40]	-14.74*** [-7.67]	-14.00*** [-7.06]	-13.85*** [-6.98]
N	3665	3578	3376	3173	3173
국가 더미	Y	Y	Y	Y	Y
시간 더미	Y	Y	Y	Y	Y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주: 1) ( ) 안은 표준편차.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 RDP-MOU 외에도 1인당 소득이나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일수록 대미 방산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

#### (4) 시사점

- 이상의 분석을 통해, RDP-MOU가 향후 한국의 대미 방산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가능
  - RDP-MOU 체결을 계기로 미국 방산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국내 방산기업들이 협정에 따른 실질적인 수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RDP-MOU를 수출증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체결에 따른 미국 방위산업 시장의 진입 가능 분야를 식별하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할 필요
  - 예를 들어, 국내 방산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토대로 미국 방산시장 진입 가능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부문의 사업 규모를 확인하여 진입 가능성을 모색

심순형 | 기계·방위산업실 부연구위원

김미정 | 기계·방위산업실 전문연구원